

# 교육개발

2013

Summer

Vol.40 No.2

## 파워 인터뷰

서남수 교육부 장관

## 특별기획 -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추진, 과제와 전망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 이슈와 전망

창의적 융합 인재 육성과 창업지원을 위한 대학혁신방안

## 포커스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

## 정책과 현장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 추진과 전망



# ‘KEDI 도서회원’이라면 귀하는 이미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입니다



1972년 8월에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맞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어 내고, 앞선 교육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며, 국가교육의 어젠다에 대한 선도적 대안을 제시해 온 세계 수준의 교육정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분야의 연구성과와 사업활동의 폭넓은 보급과 활용을 위하여 1987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EDI가 발간하는 최신 연구보고서와 정보자료들을 받아보시는 순간, 귀하께서는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KEDI 도서회원으로 함께 하십시오.

## ▣ 회원 자격 및 특전

- (1) 회원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주어집니다.
- (2) 우리 원에서 계간으로 발간하는 『교육개발』(연 4회)과 『한국교육』(연 4회)을 보내 드립니다.
- (3) 기관회원 : 기본연구보고서를 우송해 드립니다.

## ▣ 가입방법 : 가입신청서와 함께 회비 납부

▣ 연 회 비 : 1계좌당 개인회원 120,000원  
기관회원 200,000원

▣ 입금계좌 : 296-13-00262-4(외환은행)  
예금주 : 한국교육개발원

▣ 문 의 처 : 정보자료팀 Tel : 02)3460-0407

E-mail : book@kedi.re.kr





06



18



48



70



78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우리 원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발행처 |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인 | 백순근

편집장 | 문성룡

홍보출판심의위원 | 박영숙(위원장), 김주아, 문성룡, 박병영,  
박성호, 신혜숙, 이선호, 임후남, 장혜승,  
전인식, 정바울

편집실 | 정미영, 한지연, 이훈, 정지영, 양인실

디자인, 인쇄 | 디자인 프리즘 02-2264-1728

홈페이지 | <http://www.kedi.re.kr>

발행 | 2013년 6월 27일

계간등록번호 | 서초바 00022

등록변경 | 2013년 1월 23일

정가 | 6,500원

구독문의 | 02-3460-0319 [keditor@kedi.re.kr](mailto:keditor@kedi.re.kr)

# 교육개발 2013 Summer Vol.40 No.2

## 06 파워 인터뷰

서남수 교육부 장관

## 18 특별기획 -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추진, 과제와 전망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김영운 / 교육부 학교정책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박용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황홍규 /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

## 40 세계의 교육

이스라엘 경제성장의 비밀

이학재 / KTV 방송제작과 PD

교사의 시간은 학생들을 위해 가장 많이 할애되어야 한다.

김은영 / 영국 홀트 공립 중고등학교 수학 교사

세계 금융·패션의 중심에서 한글을 외치다 - 주 뉴욕 한국교육원

김윤기 / 교육부 교육연구사

## 60 이슈와 전망

창의적 융합 인재 육성과 창업지원을 위한 대학혁신방안

김미란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실장

## 66 포커스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

서거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전북대학교 총장

## 70 정책과 현장

공교육정상화추진특별법안, 추진과 전망

강은희 / 국회의원,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78 현장르포

산과 들이 칠판이고 책상...서울에서 전학생 물러

- 시골학교의 기적 춘천 금병초등학교

김연주 / 조선일보 기자

중간고사 대신 진로탐색...“꿈을 디자인해요”

- 서울 연희중학교

김수현 / 국민일보 기자

정규과목에 ‘인성교육’ 편성 실험

- 인천 송도고등학교

김도형 / 동아일보 기자

여대생들의 특별한 합숙...“타인과 사는 법 깨달았죠”

- 서울여자대학교 53년 전통 기숙사교육

이한길 / 중앙일보 기자

## 94 KEDI 소식



## 교사와 학생의 ‘행복한 상생’을 위한 교육생태계 조성



생태계(ecosystem)란 어떤 지역 안에서 여러 생물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체계를 의미하며, 그 안에서 생물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뿐 아니라 주위 환경과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우리 인간들도 주위의 사람들 포함한 다양한 생물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시설이나 설비, 자연 환경과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이처럼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기존의 사회·문화적 환경 및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환경을 새롭게 바꾸기도 한다. 그리고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상호 긴밀하게 얽혀 있어서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아무리 사소한 인간관계라도 아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이러한 현상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생태학적 접근을 강조한 프리초프 카프라(Fritjof Capra, 1939~)는 전통적인 과학적 접근의 사고방식이 합리적, 분석적, 환원론적, 선형적 특징을 지닌다고 한다면, 생태학적 접근의 사고방식은 직관적, 종합적, 전일론적, 비선형적 특징을 지닌다고 하였다. 예컨대 생태학적 접근은 이 세계를 서로 분리된 부분들의 집합이라는 환원론(reductionism)적 관점을 거부하고, 이 세계를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전체로 보는 전일론(holism)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 특히 부분에 대한 특징은 전체의 역동성으로부터 이해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부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부분이라 칭하는 것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상호 관계의 그물망(web) 안에 있는 하나의 유형(pattern)일 따름이다.

생태학적 관점에 따르면, 학습이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그 내용이나 방법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에너지와 함께 정신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 전자를 얻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후자를 얻기 위해서는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전자의 과정을 신진대사라고 한다면 후자의 과정은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이란 우리가 숨쉬고, 먹고, 자는 것처럼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학습활동을 촉진하고 도와주는 것을 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일어나는 세계를 교육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 교육생태계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이해당사자는 교사와 학생이며, 교육프로그램, 교육 시설 및 설비, 학부모, 지역주민, 학교 주변 환경 등도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고도의 지식·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교육생태계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특히 교사와 학생이 서로 행복하게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이나 성장 배경 등이 서로 다른 만큼 그러한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러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그래서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수-학습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사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에 적절한 교육적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는 교사의 다양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교사의 양성 및 임용 방식을 개선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한 경험을 지닌 분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교수-학습 활동의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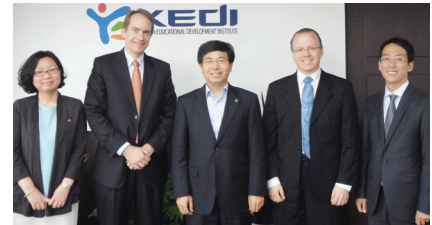
셋째, 다양한 체험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자기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것을 가르치고 배울 때 교사나 학생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문제는 스스로 체험해보기 전에는 어떤 활동을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나 학생 모두가 가능한 한 많은 체험을 직접 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넷째, 교수-학습 활동이 배려와 나눔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는 말이 있듯이,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에 서로 배려하고 함께 나누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동 학습, 동아리 활동, 공동연구 과제 수행 등 상호작용을 조장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들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개개인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적절한 처방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하듯이,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는 물론 교사 개개인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적 진단과 적절한 처방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학생이 변화하듯이 교사도 변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진단과 처방 못지않게 교사에 대한 교육적 진단과 처방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란 우리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와 사회·문화적 진화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원동력이 된 것은 교육생태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희망의 새 시대를 열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백 순 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파·워·인·터·뷰

| 서남수 교육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대담 -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 POWER INTERVIEW

“우리 교육의 기본방향, 입시 위주에서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으로 다시 세워야”

“교육부 일하는 문화,  
현장과의 소통 강화하도록 바꾸고 있어”

“대학의 자발적인 특성화와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하는 선순환적 평가체제 마련할 것”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학생들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기본방향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자유학기제, 학교체육 활성화,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등을 추진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학교,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수 장관은 이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교육부의 일하는 문화를 바꾸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의 중심에 학생을 두고 교원 등 교육 관련 주체들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교육정책의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서남수 장관은 또, 대학평가와 관련, “대학의 자발적인 특성화와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선순환적 평가체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기존의 양적 평가 위주의 획일적 평가를 설립목적·유형·지역 등 개별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고 ‘교육의 질’에 중점을 두는 평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지난 6월 10일(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청부청사에 있는 교육부 장관실에서 서남수 장관을 만나 취임 100일의 소감과 새 정부 교육정책의 실천계획,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인재육성 방안, 임기 중 꼭 해결했으면 하는 일, 그 밖의 바람과 당부 등을 들어봤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학업성취도는 높는데 만족도나 행복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백순근 원장** : 첫 교육관료 출신으로 장관에 취임하셨는데, 소회랄까 포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남수 장관** : 오랜 기간 교육부에 근무하면서 초·중등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교육정책을 기획·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는 경험을 쌓아 왔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이 한 차원 더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부 관료출신으로 첫 장관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성공한 장관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백순근 원장** : 6월 18일이 취임 100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가 올해 추진할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교정을 찾아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좁히며 교육부 내에서도 실무자들과 자주 토론을 벌이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요, 취임 100일을 맞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서남수 장관** : 100일 동안 교육부의 일하는 문화를 바꾸어 교육현장에서 '우리 교육도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수요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교육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나간다는 자세로 일하고,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복교육 공감토크 '현문즉답'과 같은 현장 소통 프로그램을 시작해, 시·도를 순회

하면서 교육감뿐만 아니라 교원, 학부모, 지역 교육 관계자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 교육감 초청 간담회(4. 4.)나 국·공립총장협의회 참석(4. 18.) 등 교육 관계자들 과도 적극 소통하고 있으며, 교총과 전교조 등 교육단체와도 소통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통의 결과, "교육부가 과거와 달라졌구나"라는 평가가 현장에서 조금씩 싹트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백순근 원장** : 교육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행복교육 공감토크 '현문즉답'을 펼치고 계시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7개 시·도를 직접 다니시면서 학부모, 교원, 지역교육 관계자들과 나눈 의견을 정책입안 단계부터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행사인데, 그동안 어떤 소통이랄까 성과가 있었는지요.

**서남수 장관** : 행복교육 공감토크 '\*현문즉답'은 장관과 교육감이 한 자리에서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주민 등의 물음에 답하는 형태로 17개 시·도교육청 단위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경남과 광주지역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2회에 걸쳐 진행된 현장소통 프로그램 '현문즉답'에서 새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지역교육의 미래 및 현안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방송에도 방영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 계신 분이 평소 교육정책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점에 답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듣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 (\*현장이 가장 현명하다, 현장에서 듣고 현장의 물음에 즉시 답하다.)

**백순근 원장** : 우리나라 아이들은 학업성취도는 높는데 만족도나 행복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전체를 보지 말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서남수 장관** :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교육분야에 적용해 보자면, 학생, 학부모, 교원, 교수 등 교육 당사자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향후 우리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그 중심을 무엇보다 학생에게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며, 특히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복교육’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교원들이 교육적 열정을 가지고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현장과의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관인 저부터 교육감협의회,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청취를 위한 17개 시·도 현문즉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대학 간담회, 교총·전

교조 등 교원단체와의 면담 등 현장의 의견 청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순근 원장** :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실현을 위해 ‘교육 본질의 회복’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이끌어내 꿈의 실현을 돕는 새 정부의 교육기초는 장관께서 평소 가지고 계셨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장관님의 소신과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서남수 장관** : 그동안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공교육 체제를 완성하여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 나타나듯이 높은 학업성취 수준을 올리는 성과가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학업 흥미도 저하, 지나친 학벌 경쟁, 과도한 교육비 부담 등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복교육’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교원들이 교육적 열정을 가지고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내 꿈이 무엇인지, 무엇을 잘하는 지 고민하고 모색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자유학기제 도입, 앞으로의 추진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부작용과 폐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새 정부는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병든 앞보다는 뿌리를 살리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우리 교육을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 주는 행복교육 실현의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첫 교육부장관으로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시키는 것이 국민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는 일이라 여기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순근 원장** : 교육부는 지난 3월 28일 대통령께 올해 추진할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추진일정과 함께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요 교육정책이나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장관님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어떤 원칙이나 주안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남수 장관** : 교육부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의 정상화 추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세부과제로서 (1)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을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체육교육 활성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대학 입학전형 간소화를 추진하고, (2)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 사회의 기반을 다져 나가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고교 직업교육 강화, 전문대학 집중 육성, 지방대학 지원 확대,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추진하며, (3)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 기능 강화,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소득 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을 중요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추진을 시작으로, 5월에는 고용부와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학교교육 정상화 운영모델이 될 자유학기제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6월 전문대학 육성 방안 마련,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방안, 7월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근절대책 수립, 8월 대입제도 간소화방안 마련 등 연중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교육부의 일하는 문화를 바꾸는 데 노력하고 있고, 정책의 중



심에 학생을 두고 교원 등 교육 관련 주체들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교육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백순근 원장** : 새 정부 교육정책의 선도모델인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신경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내 꿈이 무엇인지, 무엇을 잘하는지 고민하고 모색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자유학기제 도입, 앞으로의 추진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서남수 장관** : 금년('13년) 하반기부터 '15년까지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아울러 '14~'15년에는 희망학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후 연구학교와 희망학교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학계, 현장, 정책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5년 상반기에 전면 확대를 위한 '자유학기제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16년에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 첫째, 적성에 맞는 자기계발 및 인성 함양, 둘째, 만족감 높은 행복한 학교생활, 셋째, 공교육의 신뢰회복 및 정상화 등 학교교육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개인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을 통해 꿈과 끼, 적성에 맞는 자기계발을 할 수 있고, 더불어 함께하는 협동·협업 학습을 통해 사회성 및 인성을 함양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지역시설을 이용한 진로탐색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및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참여·활동 중심의 학습을 통해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모둠 협동 학습을 통한 교우

관계 개선 및 교사와 함께 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교사·학생 관계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자기 이해 및 진로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학습동기를 찾아 학업에 매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과도한 학업부담과 지나치게 성적을 중시하는 학교풍토가 개선되고, 경쟁과 성취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여 공교육을 신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백순근 원장** :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교육부와 사전 조율을 거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토대로 구체적인 시행령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선행학습 금지 추진과 관련한 그 동안의 경과와 교육부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13년) 하반기부터 '15년까지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아울러 '14~'15년에는 희망학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후 연구학교와 희망학교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학계, 현장, 정책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5년 상반기에 전면 확대를 위한 '자유학기제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16년에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 첫째, 적성에 맞는 자기계발 및 인성 함양, 둘째, 만족감 높은 행복한 학교생활, 셋째, 공교육의 신뢰회복 및 정상화 등 학교교육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교사들이 교권침해, 업무부담 등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창의·행복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부터 달라져야 하는데, 어떻게 달라져야 하며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남수 장관** : 학교 내에서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4월 30일 강은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부는 동 법안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필요사항 등을 규정할 시행령(안)의 마련<sup>1)</sup>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정책연구<sup>2)</sup>를 추진 중입니다. 동시에 법 제정 전이라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행교육을 금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13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선행교육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대상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부는 6월 국회에 대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순근 원장** : 교사들이 교권침해, 업무부담 등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창의·행복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부터 달라져야 하는데, 어떻게 달라져야 하며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남수 장관** : 교사들이 교권침해나 업무부담 없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행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교무행정 인력 배치, 통계성 공문 경감 및 에듀파인 개선 등을 추진해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추진하겠습니다.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 법률의 목적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추가하고, 법률명을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칭함.
-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로 한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 피해 교원에 대해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치료센터를 지정·운영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 교무행정인력 단계적 확대 배치, 학교 통계관리·활용 시스템 구축, 에듀파인 활용 시스템 개선 등

**백순근 원장** : 지난 정부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학생인권조례 등을 둘러싸고 소송으로 비화되는 등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소통 부족에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나아가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들이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관계설정 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요.

<sup>1)</sup> 선행교육 금지 행위, 입학전형 규제 대상 학교, 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의신청 절차, 동 법 적용배제 대상, 선행학습 영향평가 절차 및 내용 등.

<sup>2)</sup>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교육 방지방안 연구」(전주대 신인수)



**서남수 장관** :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일부 갈등이 있었던 점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간에 정책에 대한 소통이 부족했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교육정책이라도, 지방교육을 이끌어 가고 계신 교육감님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유연하게 소통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책수립 단계부터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육감님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하여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겠습니다.

**백순근 원장** : 새로운 대입제도의 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입제도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른 교육정책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육정책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데, 새 정부 대입정책의 대략적인 방향과 골자는 무엇이며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입학사정관제, 선택형 수능,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수능영어 대체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서남수 장관** : 대입제도는 온 국민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입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생



들의 수험 부담 완화, 예측 가능성 제고,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금년 8월까지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어떠한 방안이 담길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 등을 통해 결정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아무리 대입제도를 바꿔도 학생들이 들어가길 희망하는 대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입시경쟁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어 대입경쟁을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기 위해 정부와 대학 당국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남수 장관** : 우리의 고등교육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성취를 이루었으나, 질적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교사들이 교권침해나 업무부담 없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행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교무행정 인력 배치, 통계성 공문 경감 및 에듀파인 개선 등을 추진해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소득별 맞춤형 국가장학금제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해 전체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는 전략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는 특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대학을 육성하고자, 고등교육 재정을 확대하고, 대학평가 시에도 대학교육의 질을 반영하고 설립 목적·유형·지역 등 개별 대학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 대학을 우수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의 거점이 되도록 지원하고, 직업교육에 있어서는 전문대학이 중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아울러, 대학에서도 스스로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대학 구조조정이 줄곧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일부 대학에서는 취업 경쟁력을 이유로 학과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랄까 추진방안을 놓고 고민이 적지 않으시리라 여겨집니다. (대학평가와 연관 지어) 어떤 복안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요.

**서남수 장관** : 대학의 자발적인 특성화와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선순환적 대학평가체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양적 평가 위주의 획일적 평가를 설립목적·유형·지역 등 개별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고 ‘교육의 질’에 중점을 두는 평가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대학 구성원의 발전의지를 반영하고, 과거의 평판도가 아닌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체제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순 계량적인 투입요소 또는 산출지표 뿐 아니라 학사 운영 등 교육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대학구조 개혁 틀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인 서열에 의한 부실 대학 판정보다는 자발적인 대학의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백순근 원장** :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소득별 맞춤형 국가장학금제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해 전체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는 전략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남수 장관** :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은 학생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권자부터 8분위까지 등록금 전액부터 25% 수준까지 장학금을 차등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12년에 시작한 국가장학금 사업 이전인 ‘11년 등록금 총액은 약 14조원 수준이며, 정부는 ‘14년부터 국가장학금,



교내외장학금 등을 통해 7조원 수준을 확보함으로써 등록금 총액 대비 절반 수준으로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으로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소득수준과 연계한 맞춤형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순근 원장** : 새 정부의 국정목표 가운데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경제가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대학이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인재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하며 이를 위해 고등교육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 추진해야 하는지요.

**서남수 장관** : 창조경제란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융합과 통섭이 가능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 필요하며, 대학 내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과 창업에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시도가 권장되는 창조적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대학의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확충해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등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백순근 원장** : 교육분야에서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느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며, 이를 장려 또는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남수 장관** : 우리 교육은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공교육 체제를 완성하며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 왔습니다. 여러 차례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에 대한 찬사를 보냈<sup>3)</sup>, 바로 이 점이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지만 한편으론 과잉경쟁을 유발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을 힘들게 해 온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우리 교육의 역동성, 경쟁력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인지가 과제가 되어야 하며,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어떻게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교육을 통해' 실현해 나갈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앞서 설명한 이번 박근혜 정부의 '행복교육' 비전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그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14년부터 국가장학금, 교내외장학금 등을 통해 7조원 수준을 확보함으로써 등록금 총액 대비 절반 수준으로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으로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소득수준과 연계한 맞춤형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up>3)</sup> "한국의 부모들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자식들만은 최고의 교육을 받을 것을 고집한다" ('교육혁신 프로그램' 발표 시, 2009년), "열정을 갖고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의 마음가짐과 교육습관을 본받아야 한다" (펜실베이니아 타운홀 미팅, 2009년)

평소 자녀교육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장관님 나름의 교육관이랄까 교육철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순근 원장** :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대책(7월), 대학입시간소화 방안(8월), 학생 안전지역 지정(9월), 교원 교육전념 환경 조성방안(10월) 등 주요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을 예정인데, 임기 중에 이 문제만은 꼭 해결해야 되겠다. 잘 해 보고 싶으시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남수 장관** : 교육은 행복공동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 정책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학교 풍토로 인해 우리 교육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기보다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새 정부는 학생들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을 만들고, 우리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 나가는 것을 교육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학교교육 정상화'라고 봅니다.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학생들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기본 방향을 다시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학교체육 활성화,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꿈과 끼를 살리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이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순근 원장** : 자녀들이 다 장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자녀교육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장관님 나름의 교육관이랄까 교육철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남수 장관** : 자녀교육에서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였습니다.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지나치게 방임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체·덕·지가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 조화롭게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가르쳐 왔습니다.

**백순근 원장**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객원연구위원을 지내셨기 때문에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해 잘 아시고 애정 또한 남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해 가지고 계신 바람이나 기대, 제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남수 장관** : 한국교육개발원은 1972년 개원 이후 지난 40여년 동안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서 한국교육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의제를 발굴하고 창안하는 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자유학기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교육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부처와 연구기관은 단순한 협력관계를 넘어 좋은 정책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공동협력자로서 기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교육현장에서 국가적 교육의제를 적극 발굴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자녀교육에서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였습니다.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지나치게 방임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체·덕·지가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 조화롭게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가르쳐 왔습니다.



P R O F I L E

서남수 교육부 장관

1952년 서울 출생.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일리노이대학교(UIUC) 대학원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각각 교육학석사와 행정학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지난 1979년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교육부 학무과장·교육정책 총괄과장·교육정책기획관, 영국 런던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 연구원 등을 지냈으며, 1999년에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과 2005년에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으로 있으면서 초·중등 교육정책을 두루 섭렵했다. 2001년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과 2002년에 서울대학교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는 등 대학업무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였다. 미국 APEC 사무국 객원 연구원을 거쳐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와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지내는 등 교육계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교육관료다. 업무를 치밀하고 꼼꼼하게 처리하는 스타일이며, 내부 평판이 좋고, 대인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 이후 한국교육개발원 객원 연구위원, 경인교육대학교·홍익대학교 초빙교수, 위덕대학교 총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올해 3월부터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받아 재임 중에 있다.



#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글  
•  
김영윤  
교육부 학교정책관

## I. 들어가는 글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한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은 세 개의 큰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둘째는 고른 교육기회 보

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마지막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고 창의인재를 양성하여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구현하는 것이 새 정부 교육정책의 최종 목표이다. 이 글에서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의 세부과제 중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Ⅱ.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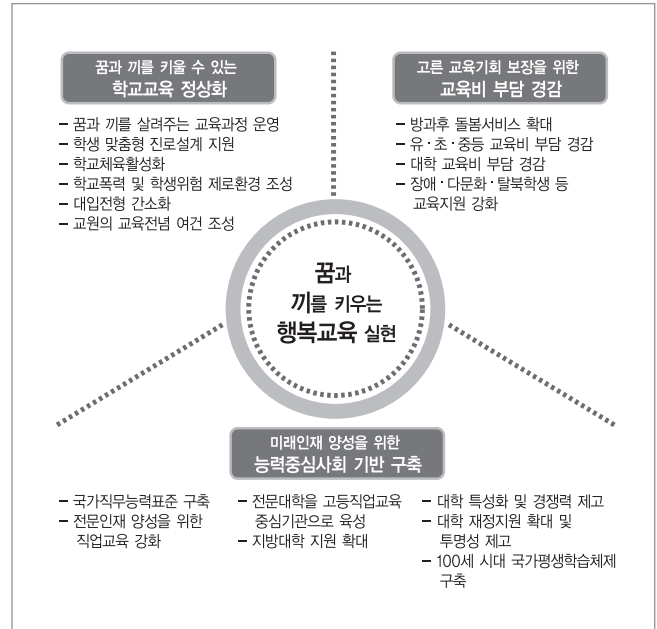
### 1. 자유학기제 추진 배경과 목적

그동안 우리 교육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주역으로, 여러 종류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항상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였고, 외국에서도 우리 교육의 우수성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2012년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OECD 23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행복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조사대상 23개국 중 23위로 나타났다. 또, 2008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학생들의 장래희망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 교육의 전환기에 해당하는 중학교에서 장래희망 ‘없다’의 비율이 초등학교에 비해 급증하여 고등학교까지 지속되며<sup>1)</sup> 장래희망을 결정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의 시간과 계기가 부족한 데서 오는 것들로 나타났다.<sup>2)</sup>

박근혜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중의 하나인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은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며 진로를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즉,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1]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 국정 비전과 주요 과제

### 2.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 가. 학생의 체계적인 진로탐색 기회 확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미술 등 교과목의 교육내용에 학교 진로교육의 성취기준과 성취지표<sup>3)</sup>를 반영한 ‘교과 통합

#### [ 자유학기제의 개념 ]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1) 장래희망 ‘없음’ 응답률(한국고용정보원, '08년) : 초등 11.2%, 중등 34.4%, 고등 32.3%

2) 장래희망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한국고용정보원, '08년) : 장래희망을 아직 찾지 못해서(32%),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몰라서(24.5%),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몰라서(17.7%) 등

3)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개발 완료('12.4월) :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진로역량 개발을 위해 81개 성취기준, 160개 성취지표 개발



진로교육'이 실시된다. 교과 통합 진로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교과와 진로교육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된 통합의 방식은 교과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진로교육적 요소를 보다 선명하게 부각하여 교과의 목표와 진로교육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sup>4)</sup> 연구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학생들에게 진로심리검사를 무료로 제공하며, 진로상담 모바일 앱(App) 등을 활용하여 학생의 특성에 맞는 진로 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유학기 동안 2회 이상의 '전일제 진로체험'을 권장하고, 학생 스스로 국내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진로체험 계획을 세워 제출하는 경우 학교장은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자기주도 진로체험' 활동도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희망사항'란 등을 학생이 원하는 직업 뿐만 아니라 희망 직업의 비전, 희망 이유 등도 함께 기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자유학기를 비롯한 초·중·고등학교에 걸친 학생의 진로탐색 활동이 체계적으로 기록·누적·관리되어 일련의 '진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나.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오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 희망에 따른 다양한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이 강화된다.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 개설과 다양한 청소년 단체의 참여 및 활동이 적극 권장되고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공공·민간 기관에서 지원한 전문 강사를 활용한 예술 과목과 다른 교과목의 융합수업, 스포츠 리그대회 활성화 등을 통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예체능 교육을 확대한다. 더불어,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인성교육, 안전교육, 보건교육 등을 직업체험과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학습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학생들의 관심 분야, 선호 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학생이 원하는 선택형 교육프로그램<sup>5)</sup>을 발굴하여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다양한 학생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은 기존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교육전문가와 교원이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시·도교육청 등에서 공모를 통해 개발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다. 유연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과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는 평가방법 마련**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들은 자유학기 동안 기존의 중간·기말고사 기간 및 학교재량 수업일을 활용하여 전일제 진로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현행 교육과정은 교과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수업시간을 늘이거나 줄여서 운영할 수 있는데, 연구학교

4) 「교과 통합 진로교육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보급( ' 12.10월)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기술·가정, 미술 교과의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5) 선택 프로그램의 예 : 창조적인 글쓰기, 한국의 예술 발견하기, 미디어와 통신, 학교잡지 출판하기, 드라마와 문화, 녹색학교 만들기 등



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보다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사들이 교육내용을 핵심 성취기준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보다 융통성 있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유학기에는 기존에 실시하던 중간·기말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대신, 학교별로 형성평가, 자기성찰평가<sup>6)</sup>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수업진도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지원센터<sup>7)</sup>를 통해 다양한 평가방안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 성취 수준 확인 결과는 학생들의 꿈과 끼 살리기와 관련된 활동 상황을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등에 서술식으로 기재하되, 구체적인 기재방식은 연구학교별로 특성에 맞는 방식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자유학기 동안의 학습 성취 수준 확인 결과는 고입 내신 성적에 반영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3. 체험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방안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체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함께 체험 활동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교육부는 경제단체, 금융기관, 대기업,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과 체험 인프라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유학기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과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 소득에 따라 학생의 체험교육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범위'에 진로체험 및 체험·참여형 교육 경비가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원센터는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산어촌형 등 유형별 운영매뉴얼 및 학생들의 수요 조사에 기반한 다양한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자유학기 동안 의미있는 진로체험 등이 가능하도록 체험기관의 역할, 우수 체험 프로그램, 체험학생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법 등을 포함한 '기본 매뉴얼'을 제작하여 체험기관, 학교,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 배포한다. 시·도교육청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시·도 안에 있는 공공·민간의 교육기부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중앙단위의 업무협약과 연계·공유하여 풍부한 체험 인프라를 확보한다. 또한, 시·도교육청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인프라 확보·활용 등을 지원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장학지원단' 및 각종 체험기관과 학교를 연결해 주는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6) 자기성찰평가 : 학생 스스로 학습계획을 수립 및 점검하는 평가(교사는 피드백 제공)  
7) 자유학기제지원센터 : 한국교육개발원(KEDI) 선정 완료(2013. 4.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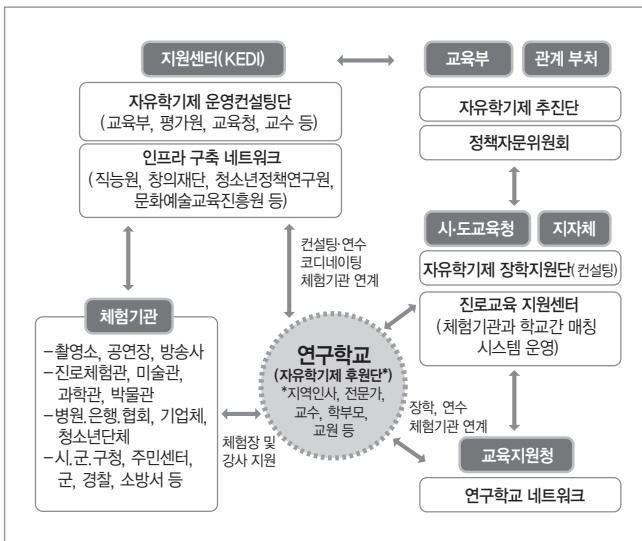
교육지원청은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함께 지역 내 체험기관을 적극 발굴하여 학교와 연결시키는 한편, 자유학기제지원센터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 내 중학교와 타 지역에 소재한 체험기관을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학교별로 지역인사, 전문가, 학부모, 교원, 자원봉사자(은퇴 전문가 포함) 등으로 구성된 '자유학기제 후원단'을 구성하고, 지역시설, 재능기부자 등을 확보하여 자유학기의 교육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학교별로 지역 내 대학생 자원봉사자, 학습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발의하였다. 이 법은 공교육체제 내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또,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고,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로 적성검사, 구술시험, 논술시험, 면접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출제 및 평가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 감소로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기대하며,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통해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이 특별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14년도부터 관련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안) 내용 마련 등 후속 조치들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시행령(안)에 규정할 것으로 검토가 필요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법(안) 제8조(선행교육 금지)는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안)에서 제시한 지필평가(중간, 기말고사 등), 수행평가 외에 학교 입학전형으로 치러지는 선발고사, 반배치 등을 위한 배치고사 및 재학 중에 시·도 또는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모의고사 등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 출제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별법(안)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는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서 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88조의2 제1항에서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규정하고 있음을 준



[그림2] 체험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방안

### Ⅲ.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 :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4월 30일 국회 강은희 의원실이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용하여, 시행령에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및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입학전형 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심사 항목 등을 분석하여 특별법(안)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기타 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이의신청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이 시행령에 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동 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학교 내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학교 수업의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 상반기에 시·도교육청별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등에 대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장학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선행교육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대상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IV.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과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방안 마련

##### 1.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최근 일반고의 교육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학생은 학교를 지루하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학교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반고에 재직 중인 교사들은 의욕을 잃고 지쳐 간다고 한다. 이러한 일반고의 위기는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와 학생 선발권을 가진 고등학교가 많아진 것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 우선 선발권을 가진 학교가 늘어나면서 일부 학교



를 중심으로 우수학생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일반고 학생의 학력이 저하된 점도 있고, 일반고의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재정지원이 특목고나 자율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적성과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반해, 일반고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능력과 수준, 진로와 동떨어진 대입 위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소홀한 점이 있었다.

이에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진로에 맞는 학습기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일반고를 육성하고, 고교교육 체제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반고 문제는 단순히 학교제도와 관련된 정책만으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어려우며, 대입제도, 교육과정, 교원 정책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교육부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창의교육, 행복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일반고 전체의 교육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큰 틀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별로 일반고가 처한 문제의 양상이 다르므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일반고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년 상반기에 마련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은 지방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 고교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



는 해법을 찾도록 유도하고, 교육부는 규정 정비, 행·재정 지원 등 큰 틀에서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일반고에 불리한 제도부터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본질 회복 차원에서 접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반고 전체의 교육역량을 드높여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과 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 특성화 및 다양화를 추진하고, 재정 지원에서 제외된 일반고를 대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검토하며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교육 대안학교 신설·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2. 교원의 교육전념 환경 조성방안 마련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축,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그리고 교원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학생 수 증감 추세, 중장기 교원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OECD 국가 상위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무행정 인력을 2014년부터 교육청별·학교별 여건 및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불필요한 통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교교육 통계 관리 및 활용을 입법화하고, 학기별로 주요 학교 교육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에듀파인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잦은 교원평가로 인한 교원의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그리고 교원성과급

평가를 동일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각종 평가 지표도 수업능력과 학생지도 실적 중심으로 조정하여 학교 및 교원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원평가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V. 나가는 글

박근혜정부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와 관련된 정책에는 위에서 제시한 것 외에도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실천운동 활성화’, ‘학교체육 활성화’,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핵심역량 중심 교과서 개발’, ‘진로탐색 및 체험지원 확대’, ‘체험중심 진로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 ‘대학입시 간소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의 과제들이 있다.

이와 같은 과제들은 우리 교육이 초등 무상교육 이후 최단기간 내에 공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국민 교육 수준의 향상,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학생, 학부모 등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입시 위주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행복하지 못하고,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도 지속되고 있다는 한계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새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ㄹ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평생직업교육이 앞장서고 이뤄낸다

글

박용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 I. 들어가는 말

험난한 근·현대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  
라고 대변되는 눈부신 경제발전과 전대미문의 빠른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교육의 힘이 지대하였다. 국민 개개인

의 배우고자 하는 의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헌신적 교육 열정  
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나라로 만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교육은 최고의  
성장정책이자 복지정책<sup>1)</sup>이라고 강조하면서, 사람이 가장 중요

1) 대통령 출마 선언문 중 발췌('12.7.10,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광장)



한 투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키우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국가 전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교육정책의 중요성을 대통령이 선언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봐도 부족하지 않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도래라는 험난한 파고를 넘어야 할 우리로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재양성 체계가 시급하다. 그렇잖아도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양성, 관리, 그리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차별화된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학교교육이라는 한 가지 큰 축에서는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국가적 책무가 될 것이다. 또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인생 이모작, 삼모작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이 또 다른 축의 국가사회적 책무가 될 것이다.

## II.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실행 노력

### 1.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 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의 필요성

지금까지 학교교육은 교원 등의 공급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왔다고해도 크게 지나침이 없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직무수요를 학교교육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기업은 학교교육을 불신하여 실제로 일을 잘하는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벌이나 스펙에 의존하여 채용하고, 신입사원의 재교육에 상당한 부분 비용을 투입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낭비요인이 되는 악순환을 반복해 오고 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필요 이상의 학력과 스펙을 쌓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직무의 성공적인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NCS)을 개발하여 이를 학교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 등에 적용하고,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계하는 국가역량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 NQF) 구축을 추진하여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나.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이미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분야에는 다양한 형태의 국가 표준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훈련기준 및 국가기술자격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표준은 개발한 주체가 서로 다르고, 각 표준에



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하여 교육훈련을 받고난 후, 다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별도의 학습을 수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들 표준은 인력의 공급자인 정부와 교육훈련기관 중심이 되어 개발된 것이므로, 인력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이 각 표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2014년까지 산업체의 833개 직무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이미 개발이 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수정·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과정에서 산업체 인사 뿐 아니라 학교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 전문가를 개발진에 포함한 이른바 ‘협업형 개발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과정에서부터 학습모듈 개발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과정, 그리고 자격제도 개편과정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은 산업현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직무분야의 30~50개 대표 기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그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하여 수행준거, 이론 및 실습, 선행학습, 이수시간 및 수준, 평가 등으로 구성된 학습모듈(Learning Modules)을 개발할 예정이다.

그리고 개발된 학습모듈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서 필요에 따라 바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에서의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NCS 및 학습모듈에 기반하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할 것이며, 전문대학의 시범운영 등을 통해 대학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이를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개편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과정이수형 자격도 연계하고, 산업명장 참여형 현장실습체계 및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을 통한 능력중심사회 구현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학교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에 반영하고 기업의 채용과 승진시스템을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능력중심사회로 가기 위한 시발점인 동시에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기업 등에서 원하는 현장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에서의 교육이 곧바로 산업체의 직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도 채용이나 승진에서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일을 잘하는 능력'을 적용하려는 문화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국가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 가. 온라인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 구축

온라인 종합전달체계는 양질의 디지털콘텐츠와 교육정보를 제공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한편으로는 기존의 오프라인 추진체계를 활용하여 온라인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온라인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제공과 콘텐츠 공유의 기능이다. 온라인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는 지역에 산재된 평생교육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고, 양질의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자료를 연계하여 교육정보와 콘텐츠에 대한 평생학습포털의 기능을 수행한다.

두 번째 기능은 지식나눔과 재능기부의 활성화이다. 온라인 종합전달체계는 콘텐츠와 정보제공의 일방적인 서비스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온라인 공간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지식을 공유·재생산하는 쌍방향 소통의 장으로 구현된다.

**나. 오프라인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 활성화**

현재 평생교육법에 따라 중앙-시·도-시·군·구 단위의 국가 평생교육 추진체제가 구동되고 있으며, 2012년까지 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90개 평생학습도시, 428개 평생학습관이 운영되고 있다.

2013년에는 시·군·구 단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여 주민의 수요를 고려한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을 실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행복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2017년까지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확대하여 올해 신규 지정되는 28개 시·군·구를 포함하여 전국 118개 시·군·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운영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질 높은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보유한 대학의 역할도 강화하고자 한다. 2013년에는 35개 성인친화형 대학을 육성하여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및 전직자, 베이비 부머 등 경제활동을 원하는 지역의 유휴인력 및 재취업 희망자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강화**

국민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구축된 지역의 인프라와 추진체제를 활용해 생애단계별·계층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생애단계별로 살펴보면, 2030세대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재직자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4050세대에게는 방송통신대, 평생학습 중심대학 등 생활권 중심의 고등교육 기관과 산업체, 지역 교육기관간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 및 재취업, 전직 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제공하며, 6070세대를 위해 평생학습도시 등 지역과 연계해 실버세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학습형·보람형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 밖에, 성인 비문해자 등 저학력자 대상의 프로그램 지원, 장애 성인을 위한 교과서 개발, 학점은행제를 통한 경력단절 여성의 자격취득 및 재취업, 독학학위제를 통한 군인 및 재소자의 학위취득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 3.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방안

#### 가. 소질과 적성, 희망에 따라 직업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 교육시스템 구축

학력중심의 단선적 진로에서 벗어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직업교육을 통해 꿈과 끼를 펼치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취업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13. 4. 1 기준으로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은 38.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마이스터고의 경우는 90.3%로 거의 완전 취업에 가까운 상태이다. 또한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확대 도입하고,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도 취업을 희망할 경우, 위탁교육의 기회도 확대해 실제 취업을 절실히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할 계획이다.

동 특별전형 확대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14학년도에는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일반고에 재학하고 있으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청, 고용부 등 관계부처, 폴리텍, 산업인력공단 등 다양한 교육훈련기관과 협력하여 위탁과정 확대 및 내실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 나.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계의 특성화고 지원 확대

고교 직업교육 기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특성화고의 발전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계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2008년부터 성장동력 산업분야와 구조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시작된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부처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가 특성화



고에 산·학·관 협력 및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어촌과 도서벽지 학생들의 직업교육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전문계 학과를 설치한 일반고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다. 마이스터고 지정 다양화 및 지속발전 지원

국가전략 산업이나 FTA 등에 대비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산업분야의 기술명장을 조기에 육성하기 위해, 부처와 협력하여 해당 분야에 마이스터고 지정을 추진하고, 직업교육의 신뢰회복을 견인할 마이스터고의 성과가 지속되고 특성화고와 공유될 수 있도록 졸업생의 경력개발 경로 확립, 지원체제 개선 등 후속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 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심 교육과정 운영

고교 직업교육 단계의 교육과정이 산업현장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기반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고용부와 협력하여 광주공고 등 3개 특성화고를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운영 연구시범학교'로 지정하여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모델 발굴을 추진하고,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 고졸 취업자 지속적 경력개발 인프라 구축**

고졸 취업자가 계속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경력개발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재직경력·자격증·교육이수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작업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국가전략상 필요한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서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마이스티고·특성화고 졸업생에 대해 국비 연수와 유학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등에서 원하는 현장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에서의 교육이 곧바로 산업체의 직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도 채용이나 승진에서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일을 잘하는 능력을 적용하려는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국민적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채용과 승진시스템을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으로 전환하고 100세 시대에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평생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부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Ⅲ. 나가는 말**

국민 개개인 모두가 그 노력과 실력에 의해 정당하게 인정받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벌과 스펙이라는 고정적인 틀을 벗어나 개개인의 능력을 인정하고 채용하며 그들의 능력이 평생 계발될 수 있는 체제 마련이 필수적일 것이다.







#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글

황홍규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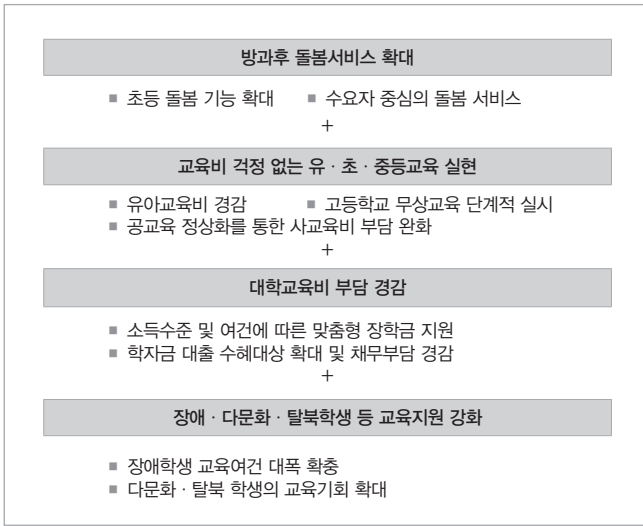
## I. 들어가는 말

한국이 전쟁 이후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반세기만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해외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국격이 상승하게 된 계기는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투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되고, 모든 학생들이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감축하여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에 상관없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특히,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교 내 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해 맞벌이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유치원·고교 교육비 지원, 소득연계형 맞춤형 장학금 지원을 통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나가며, 경제적·문화적·지역적 차이 등을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림 1]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요 정책의 하나로 '학교 내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오후 5시까지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해 오던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오후 10시까지 급식 및 돌봄 서비스 무상 제공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은 2008년부터 운영교실 수 및 이용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2]를 보면, 2008년 3,334실에서 54,638명이 참여하였으나, 2012년에는 7,086실에서 159,248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부모 만족도도 운영 전반에 걸쳐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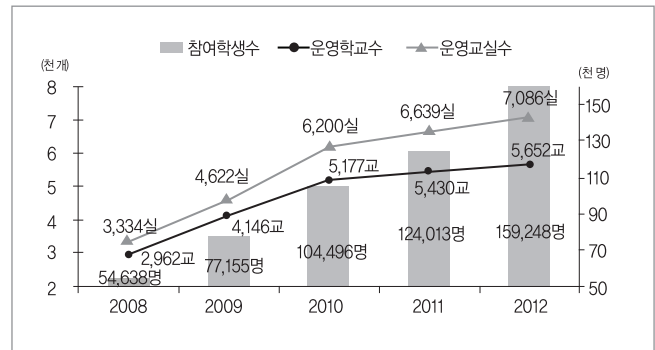
실제 돌봄교실 참여 학부모 109,842명의 설문조사 결과(2012. 6월), 오후돌봄의 경우 88.4%, 저녁돌봄의 경우 89.9%의 학부모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정부는 급증하는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방과후 학교 내 돌봄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단위학교와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한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온종일 돌봄교실의 확대로 가중된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며, 우수한 돌봄전담인력의 확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돌봄의 사각·중복 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이 반영

## II.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주요 내용

### 1.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족, 저소득 가정 등의 증가에 따라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방치되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질 높은 돌봄(교육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 상황 인식을 토대로 정부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주



[그림 2]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현황

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 사업을 연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 6개 지역(서울 노원구, 부산 서구, 전남 나주시, 경기 성남시, 울산 울주군, 전북 진안군)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점차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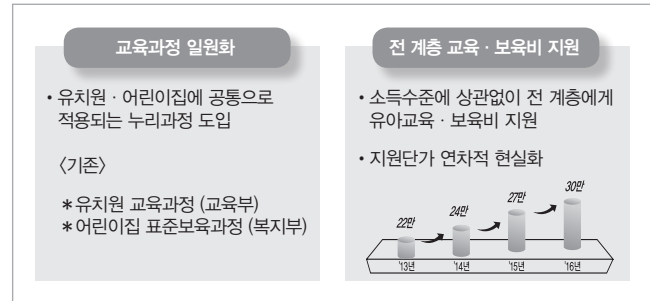
정부는 방과후 돌봄 교실이 학생들을 가정과 같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따뜻하게 돌보는 역할과 함께,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방과후 돌봄 기능 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학교의 돌봄 기능 확대와 함께 가정·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나서서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서서’ 교육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 2. 교육비 걱정 없는 유·초·중등교육 실현

### 가. 유아교육비 경감

북미 및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유아 무상교육 등을 통해 취학 직전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5세 누리과정을 도입,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모든 유아의 학부모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는 만 3~4세에게도 누리과정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누리과정 학비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학부모 육아부담을 경감토록 할 계획이다.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1년부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점검단’을 운영하여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를 유도하였으며, 2012년 9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통해 ‘유치원 정보공시제’를 도입함으로써 유치원비 현황을 공개하여 원비 인상 억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



[그림 3] 유아교육 지원 확대

를 도입하여 사립유치원 원비, 학부모 부담 경비 등에 대해 자문하게 함으로써 원장의 독단적인 유치원비 결정을 견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치원비 인상을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0-5세 영유아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책임의 실현을 위해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2013.5.22)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정부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이후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초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완성하였다. 1972년 헌법 개정, 1984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85년 도서벽지, 1992년 읍면지역, 2002년 시지역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완성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교육은 국민 개개인의 사적 부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미국,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외국 주요 국가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화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아직 입학금, 수업료 등 고등학교 교육비 부담을 학생·학부모에게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OECD 교육지표에서도 우리의 초·중등교육 단계





공교육비 민간부담율이 1.1%로 OECD 평균 0.3%에 비해 높아 국민의 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 실현에 이어 후기中等교육에서 국가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 추진을 위해 현재 정부는 다양한 고교 무상교육 실시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단계적 실시 과정에서 국민의 만족도를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의 연구 및 자문, 관계 부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지난 2013년 4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었다. 향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면 정부는 신속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 법령을 개정하여 고교 무상교육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계획'은 2013년 9월 발표될 예정이며, 그 계획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은 2014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2017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 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과도한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스트레스 유발과 뇌 발달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능과외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용 콘텐츠와 서비스를 EBS 교육방송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험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간 교육부는 '선행학습 방지대책'(2012. 5월), '사교육 억제 및 사교육비 경감 대책'(2013. 1월)을 수립·시행하는 등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교육체제 내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회 강은희 의원이 지난 4월 30일 대표 발의 하였다. 동법은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공정한 학생평가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 및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학교의 장은 선행학습 예방 목적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선행학습의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고, 학교 입시 및 적성검사, 논술검사 등 대학별 고사에서 해당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출제 및 평가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동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동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가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홍보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를 완화

하며, 수능과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능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BS 수능강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04년 2월에 발표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같은 해 4월부터 방송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능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2009년 3월에는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EBS 수능강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EBS 간 MOU를 체결하여 EBS 수능강의와 대입 수능시험 간의 연계 강화 및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을 제도화하였다.

EBS 수능강의는 고교 3학년과 수험생에게는 수능에 대비하여 개념학습, 응용력 및 문제해결력 향상, 실전 적응력을 완성시키는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교 1학년과 2학년을 위해 내신 대비 실력향상 강좌를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수시 및 대학별 논술시험을 대비한 논술·구술 기초 강좌 및 대학별 실전 논술강의도 제공하고 있다. EBS 수능강의는 사교육에서는 섭외가 어려운 주요 대학 교수진의 특강을 제공하는 등 사교육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난 3년간 EBS 학습강좌 현황은 <표 1>과 같다.

인터넷 사이트인 EBSi는 수능강의 서비스 외에도 학생들이 EBS 수능강좌 및 교재를 이용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을 해결해 주는 질의응답 및 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1:1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대학교

육협의회와 협력하여 온라인 입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방문 입시설명회 및 EBS 영역별 대표 강사와 현직 전문상담 교사가 참석하는 대형 입시설명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EBS 수능강의를 통해 별도의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학교수업을 충실히 받고, EBS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수능 준비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 감소로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BS 수능강의 및 교재를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등 EBS 수능강의가 사교육비 경감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표 1> EBS 학습강좌 현황

(단위: 강좌/편)

영역별	2010년		2011년		2012년	
	강좌	편수	강좌	편수	강좌	편수
수능	1,060	19,884	752	17,896	798	15,235
내신	458	7,684	377	6,935	607	7,449
논술	278	1,294	96	2,255	88	1,083
소계	17,96	28,862	1,225	27,086	1,493	23,767

### 3.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2011년 기준 72.5%로 OECD 주요 국가 평균 대학진학률에 비추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2012년 발표된 OECD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등록금 수준은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



사회적 계층 이동의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1조 7,500억 원의 국가장학금 사업을 도입했다. 2013년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 80%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2조 7,750억 원의 예산을 증액·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진입 문턱을 낮추는데 기여했다.

박근혜 정부는 교육비 부담 경감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 제고를 위해 소득수준과 연계한 맞춤형 장학금 지원을 201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소득연계 맞춤형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14조원 대비 7조원 수준의 정부재원 및 교내·외 장학금을 확충함으로써 등록금 부담을 총액 대비 절반 수준으로 경감하며, 정부 재원 및 교내·외 장학금을 연계하여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가용 재원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수준 80%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외 장학금과 연계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행복한 임신과 출산’ 국정과제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소득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과 연계한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을 2014년부터 시행함으

로써, 등록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자녀가구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학금 수혜범위를 넘어서는 학자금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학자금 대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한국장학재단의 설립과 함께 이자율을 인하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인 든든학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하였다. 또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2013년 기준 2.9%로 인하하였으며, 5년간 물가상승률 반영 시 실질 금리 제로 수준의 학자금 대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4. 장애·다문화·탈북 학생 등 교육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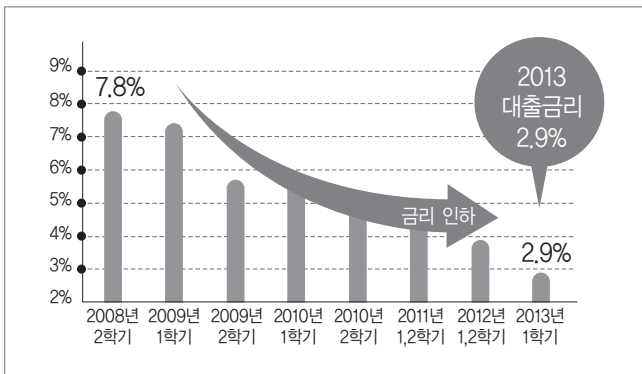
##### 가. 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확충

정부는 장애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국정과제인 ‘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확충’ 정책과 함께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장애학생 교육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먼저, 일반학생에 비해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연한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만3세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령기 장애학생에게는 의무교육을, 만3세 미만 장애영아와 전공과 학생에게는 무상교육을 제공하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일반학생에 비해 국가의 교육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특례입학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둘째, 특수학급 학생 정원 및 교사 1인당 지원 학생 수 감축



[그림 4]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을 통해 학생 개인별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07년 특수학급당 학생 정원은 12명이었으나 2008년 이후 특수학급당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조정하였으며, 교사 1인당 지원 학생 수는 4명으로 감축하였다.

한편, 과밀 특수학급을 해소하고 원거리 통학 장애학생을 원활하게 수용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특수학교 20개교, 특수학급 2,500개, 전공과 150학급 이상을 신·증설하며,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율 95% 도달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셋째,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장애특성별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자료 및 교육기자재, 보조인력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장애특성별 교육과정 운영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에 더하여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장애유형별 교수-학습 기자재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학생이 교내 이동이나 신변처리, 교수-학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수교육보조원, 공익근무요원 등 보조인력을 제공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반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의 개별화된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지원을 위해 전국 187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순회특

수교사를 배치하고, 일반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순회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학생을 위해서는 점자교과서나 확대 독서기 등의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수화통역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장애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특수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범부처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장애학생 교육지원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나.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강화

최근 다문화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가정생성배경(국제결혼가정/외국인가정), 출생지(국내/국외), 거주지(도시/농촌), 부모의 국적 등 학생 개인별 특성이 다양화됨에 따라 다문화 학생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사업은 국정과제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글로벌 인재 육성’으로 지정되어 다문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개인의 역량 개발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를 시·도교육청에 배치(‘13년 25명)하여 입학부터 학교생활 적응·상담 등 다문화 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돕고, 단기간에 학교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 학생을 위해 취학 전 예비과정을 운영하여 한국어·한국문화를 집중 교육하고 있다.

또한 학교 내 다문화 특별학급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 특별학급 확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역량 있는 고학력 다문화 학부모에게 600시간의 연수를 제공하여 한국어 및 이중언어 지도, 통역, 상담, 다문화 이해교육 등 학교의 다문화 교육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강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3년 현재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등에 280명의 이중언어강사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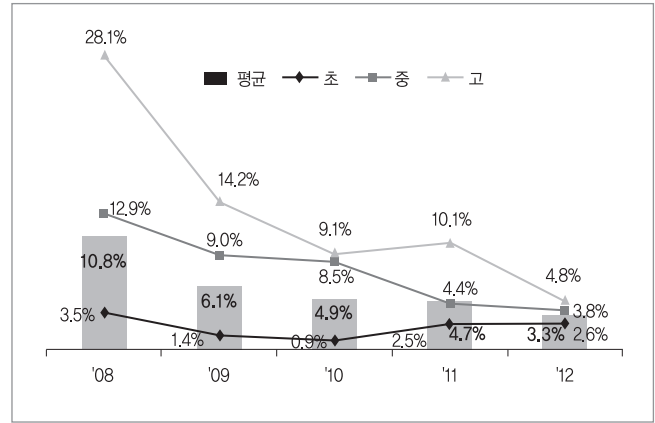
하고 있다.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연수과정 운영 등 학교 구성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과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다문화 교육을 반영한 다문화 친화적 교과서와 지도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학교별 다문화 축제, 동아리 활동, 그림·글짓기 행사, 시·도교육청별 학부모 설명회 및 연수회,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을 활용한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 교육지원 정책은 여가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무총리 주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문화 정책 기본계획 수립, 다문화 가족 관련 조사 등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다문화 학생도 우리나라의 소중한 인재임을 인식하고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며, 방송 매체 등을 활용한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것이다.

#### 다. 탈북학생 교육지원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늘어나고, 탈북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현재 1,975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탈북학생 다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교육공백과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학교·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세부과제 중 하나로 ‘탈북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의료 지원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교육부는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8년 10.8%이던 학업중단율이 2012년에는 3.3%로 낮아지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2012년 “탈북학생 교육발전 방안”을 수립하여 탈북학생을 위한 중장기적인 교육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림 5] 탈북학생 학업중단율 추이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정책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탈북학생을 끌어안는 교육”을 모토로 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 적응을 위한 초기교육의 내실화이다.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한 교육과정·용어 차이를 완충하는 표준(보충)교재를 개발하여 입국 초기 탈북학생의 학습보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삼죽초와 하나둘학교 지원을 통해 인근 중·고교 간의 협력으로 통합교육을 체험하고 정착지 학교로의 이행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위탁형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와 인천논현중학교에 특별학급을 개설하여 학업보충, 사회·문화 적응 지원 집중 교육을 위한 예비학교도 운영하여, 탈북학생 초기 교육이 안정화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둘째, 체계적·통합적 맞춤형 교육 지원이다. 학생들의 개별 경험, 입국시기, 학습 경험, 출신국 등을 고려하고 학생별 다양한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갖고 있는 탈북학생의 적응·성장을 위한 실질적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체계적·통합적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탈북교사

를 학생 전담 코디네이터로 선발해 탈북학생 다수가 있는 학교(14개교)에 배치하였다. 또한 대학생 멘토링, 재능기부 등을 통한 탈북학생 성장멘토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탈북학생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학교(11개교)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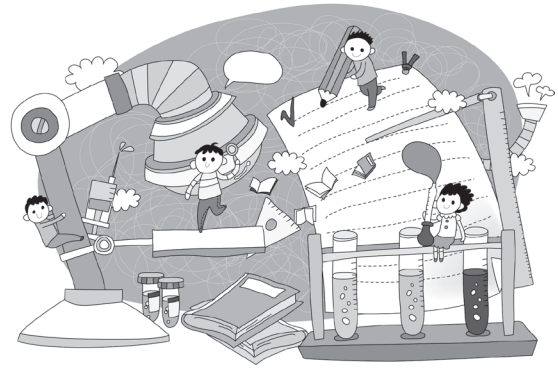
셋째, 탈북학생들의 성장·자립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이다.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성장의 가능성을 발굴하여 주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체능, 수학·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을 보이는 우수 학생(20명)을 발굴하고 역량을 계발하는 HOPE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탈북학생이 보이는 높은 성취동기와 성공에 대한 의지를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탈북학생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종합적인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탈북학생들이 민주시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 Ⅲ. 나가는 말

정부는 공교육에서 국가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비 경감 정책의 세부과제로서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교육비 걱정 없는 유·초·중등교육 실현,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장애·다문화·탈북 학생 교육지원 강화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고 마음껏 꿈과 끼를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그와 같은 긍정적 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화된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기획·추진해 나갈 것이다. ✎







# World Education



## 이스라엘 경제성장의 비밀

글

• 이학재

KTV 방송제작과 PD

처음 이스라엘을 접한 것은 역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부상한 '창업국가'일 것이다. 사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에 대해 필자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000년 역사를 가지고도 건국한 지 65년 밖에 안 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5분의 1 밖에 안 되는 면적에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으로 이뤄진 척박한 땅 위에 세워진 나라다. 인구는 780만명이 채 안되지만, 중동의 여러 국가들과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는 신기한 나라이기도 하다.

자료를 찾아 공부를 하다보니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다. 1차 중동전쟁부터 6일 전쟁까지, 4번의 전쟁을 모두 이겨내고, 오히려 영토를 확장해 내는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전쟁을 치루면서도 국내총생산이 3천달러를 육박하며 세계 경제강국으로 올라섰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 비밀의 열쇠를 풀어가기 위해 8가지 소재를 현지취재를 통해 정리해 봤다.



## 1. 결사항전의 상징, 마사다

5월임에도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길은 강렬한 태양 빛에 이글거렸다. 텔아비브를 출발, 예루살렘을 거쳐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마사다 요새. 취재시간이 촉박하여 어쩔 수 없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다. 올라가면서 2천년 전의 구불구불한 뱀길(뱀의 발자국)이 보였다. 아마도 그 옛날 저 길을 따라 마사다를 올랐으리라. 10분도 채 안 되는 탑승시간 동안 역사의 무게감이 더해져서 인지 마음이 착잡했다.

마사다는 로마제국에 대한 최후 항쟁지다. 유대왕국의 최후 생존자 960명은 이곳 마사다로 숨어들어와 쫓아온 로마군대 8,000명과 대항했다. 의외로 탄탄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7년을 버텨내지만, 생포된 유대인들을 앞세워 쳐들어오는 로마군을 코앞에 두고, 노예로 살지 말자는 다짐으로 전원 자결을 결심한다. 하지만, 자살을 금지하고 있는 유대율법을 따르기 위해 추첨을 통해 10명을 뽑아 자살하지 않아도 되도록 도와준다. 남은 10명은 다시 한명을 뽑고, 그만이 자살을 통해 스스로를 희생한다. 마사다는 히브리어로 요새란 뜻이다. 정상에 올라서니 7년을 버텼다는 전설같은 역사처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같았다. 심지어 목욕탕까지 있었으니 사막 속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마사다에 올라서니 사해가 코앞에 펼쳐져 있고, 마주보는 반대편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임관식에서 선서를 하는 단상도 보인다. 관계자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장교가 임관할 때는 반드시 마사다에 와서 선서를 한다고 말한다.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을 이스라엘의 정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신성시 여기고, 여러번 다녀가는 곳이라고 한다.

지금은 관광지로도 유명해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사해와 함께 관광지로 더 유명해졌다. 촬영하는 동안 내내 숙연해지는 것은 아마도 2,000년 전 피의 역사가 내 마음을 울렸기 때문이 아닐까.

## 2. 건국의 힘, 키부츠

텔아비브에서 북쪽으로 2시간을 달려 하이파공업도시 인근에 키부츠를 찾았다. 라마트 요하난 키부츠의 책임자 우디씨는 유쾌한 분이였다. 부모님이 키부츠설립의 주인공이었고, 지금은 자신이 키부츠의 모든 것을 관리한다고 했다. 마을입구까지 마중나온 우디씨를 따라 키부츠를 들어섰다. 1931년 설립되어 8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 키부츠는 초기 키부츠의 역사를 엿볼 수 있었다.

히브리어로 키부츠는 집단을 뜻한다. 척박한 땅을 개척하기 위해 힘을 모은 공동체가 바로 키부츠다. 일종의 공동체사회를 형성한 것인데,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 키부츠의 기본 정신이다. 이는 사막과 열사의 땅위에 정착하고







# World Education

나라의 토대를 닦아 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낸다. 주거와 생계수단을 확보해 나가고 자연스럽게 건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현재 이스라엘은 270여개의 키부츠가 있으며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15만명 정도로 이스라엘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수치다. 놀라운 것은 1.6%의 키부츠 거주인구가 이스라엘 산업수입의 10%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디씨의 키부츠는 40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대규모 키부츠 중 하나이다. 희망하는 분야에서 1,2년 정도 생활한 후 일정한 자격검증이 이뤄지면 국적과 종교를 떠나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하면 옷과 식료품, 주택을 공급받고, 치과를 포함한 병원 심지어는 양로원까지 키부츠에서 생로병사를 모두 함께 할 수 있다.

세탁실에서 만난 노인은 세탁 일이 좋아 40년 가까이 일을 해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또한, 자동차도 공동으로 이용한다. 마치 렌트카 같이 100여대의 차를 관리하며 자신이 필요할 때 간단히 컴퓨터로 등록하고, 키를 가지고 나가면 된다. 한 주민에게 개인 소유의 차가 갖고 싶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지금도 편한데 왜 내 소유의 차가 필요하냐고 오히려 반문하여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대화가 기억난다.

우디씨는 키부츠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한다. 공자의 관리자든, 식당에서 일하든 모두가 평등하고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 몫까지 혜택이 더 돌아가게 해준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유난히 관심을 보이는 나에게 우디씨는 한국에서 온 나도 뜻만 있다면 받아줄테니 언제든 들어오라는 말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만큼 그들은 이방인에게 열려 있다.

## 3. 성지 중의 성지, 통곡의 벽

통곡의 벽을 찾아가기 위해 예루살렘 성벽을 따라 걸어 올라갔다. 이윽고, 도착한 입구에는 관광객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동예루살렘 통곡의 벽은 입구에서만 검문검색을 하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벽 앞에서 많은 순례객들의 기도를 목격할 수 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벽 앞에서 상체를 앞뒤나 좌우로 흔들며 신을 대한다. 반듯한 자세로 신을 대할 수 없기에 그렇다는 설명을 듣고 보니, 기도를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더욱 절박해 보인다. 커다란 벽돌 틈마다 순례자들의 소원이 적힌 종이들이 빼곡하게 끼여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는 반드시 이뤄진다는 믿음이 강하여, 관광객들조차 종이를 끼워 넣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유대인들 중에 유독 복장이 특이한 사람들이 있는데, 귀밑 옆머리를 길게 기르고, 검은 양복에 검은 모자를 쓴 유대인들을 정통파 유대교도라고 부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림새와는 상관없이 종교적인 행사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성전이 파괴된 역사를 가슴 아파하며 1년에 한 번씩 통곡하는 곳. 하지만, 그날 외에는 함께 어울려 노래하고, 서로를 축복한다.

우리가 찾은 금요일 저녁에도 어김없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휴일이라 불리우는 ‘샤바트(안식일)’가 시작됐다. 샤바트는 금요일 해가 지면서 시작되고, 토요일 해가 지면 끝이 나는데, 이 기간 중에는 일을 해서는 안되며, 불을 피워도 안 되고, 요리를 해도 안 되며, 심지어는 운전을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상 금요일과 토요일날이 휴일이고, 일요일은 평일의 시작이 된다. 하지만, 인터넷과 미디어를 접한 젊은이들 중에는 샤바트의 전통규율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도 한다.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무장했다고 의심치 않는 이스라엘, 종교의 힘으로 건국하고, 종교의 힘으로 세계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이스라엘도 이제 신구세대의 과도기로 접어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대목이다.

#### 4. 과학연구의 메카, 바이츠만 연구소

와이즈만 연구소는 과학자이자 초대 대통령인 하임바이츠만이 설립한 세계 최고의 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 이스라엘의 기술 경쟁력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바이츠만 연구소 내에는 석,박사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 많은 과학도들이 꿈에 그리는 학교이자 연구소다.

현재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내용은 생물학, 생화학 등 생명과학분야가 60%이고, 40%는 수학과 컴퓨터공학, 그리고 물리학 등이라고 한다.

2,700여 명의 연구진이 모여 있는 바이츠만 연구소는 아주 개방적인 교육 시스템을 고수한다. 연구에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의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세계적 수준의 세미나, 워크숍이 항상 열리고 있다. 한국에서 온 연구원들도 몇몇 만나 봤지만, 연구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에서 접해 볼 수 없었던 대규모의 연구나 실험을 직접 해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해 하며,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시도할 수 있는 연구소 분위기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 말한다. 번역학을 연구한다는 양승훈 연구원은 이스라엘로 온지 7년째 된다. 현재 바이츠만 연구소의 한국인 연구원 중 최고참이라고 한다. 양 연구원은 아무리 교수와 제자 사이라도 논리만 있으면 논쟁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역시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무엇이든 알아야 하는 내용을 무례할 정도로 질문을 거듭하는 자세는 배워야 할 점이라고 말한다.

또한, 바이츠만 연구소는 기초과학의 연구를 주도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천문학적 금액의 특허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허권을 통한 연간 로열티만 100억 달러 이상인데 이들이 10년 이상 연구한 기초과학 기술들이 지금의 생명공학과 신재생에너지, 전자, 화학기업들의



# World Education

제품 개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예다'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노하우(know-how)'이다. 예다는 바이츠만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모든 과학자들의 지적 재산을 책임지고 있다. 그래서, 한 과학자가 무언가를 개발해내면 회사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등록 후 상품화하는 경로로 이끈다. 그 다음에는 그 개발한 아이템에 대하여 투자자를 확보하고,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바이츠만 연구소에게 로열티를 지급한다. 개발을 담당했던 과학자도 당연히 로열티를 받는다. 이러한 기초과학 기술과 연구 인재들을 바탕으로 10년 전 200여 개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생명과학기업은 현재 1,000개 이상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스라엘 하이테크산업연합 관계자는 "기업들은 40%가 설립 5년 미만의 신생기업이라며 그럼에도 이중 30% 이상이 이미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 5. 하부르타를 아시나요, 예시바

이스라엘은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의 3대 종교의 성지가 예루살렘에 있고, 이 중 유대교가 약 70%를 차지하며 유대 인들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종교가 생활이고, 전부인 이들에게 유대교는 절대적이다. 예루살렘에 위치한 예시바를 찾았을 때 단순히 좀 특이한 도서관이라는 설명을 듣고 찾았는데, 이는 상상을 뛰어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유대교 전통복장을 한 학생들로 가득한 도서관, 도서관은 건물 전체에 있었다. 작은 방에도 큰 광장규모의 방에도 전통복장을 갖춘 학생들로 그야말로 인산인해. 예시바의 첫인상은 당혹스러울 만큼 일반적인

학교 분위기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말 그대로 난장 그대로다. 서로가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느라 주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유대경전을 공부하는 이들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탈무드를 펴놓고, 하나의 명제를 함께 읽는다. 2명이 한 조가 되어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난 후에는 철저하게 자신의 논리를 펼친다. 세상에 가장 현명한 랍비가 결론을 내린다해도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2명씩 짝을 지어 토론하는 학습법을 '하브루타'라고 한다. 하브루타는 '친구'란 뜻의 히브리어로 나이, 계급, 성별에 관계없이 3명도 아니고, 딱 2명만 짝지어 논쟁을 통해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해준다. 이스라엘 탈무드식 교육전문가이자 이스라엘영재교육센터의 이사장인 헤츠키 아레일리 회장은 "하브루타식 학습은 서로가 동등한 상태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보다 더 지혜가 많은 랍비라도 상관없습니다. 상대가 더 높은 지위에 있어도 되지만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배웁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권투시합같이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논쟁하며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예시바학교에서는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마음가짐에





오래됐지만, 신선한 것을 내 머릿속에 넣어 주었다.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이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것은 여전히 필자에게 미스터리한 부분으로 남는다.

## 6. 건국 30년 전 개교의 전설, 히브리대학교

1918년, 이스라엘이 건국 30년 전 이스라엘의 최고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히브리대학교가 설립된다. 반대로 말하면, 히브리대학교는 설립 후 30년간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천재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공동설립자로, 히브리대학교는 이스라엘의 과학육성과 건국에 커다란 역할을 해냈다. 설립자인 아인슈타인을 포함해 노벨상 수상자만 9명,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22%를 배출한 이스라엘의 무서운 저력이다. 훗날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 된 하임 바이츠만이 초대 총장을 지낸 곳으로 현재 25,000여 명의 학생들이 학문을 연구하고 있다. 히브리 대학은 일방적인 강의를 듣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학습을 만들어가고 있다.

실제로 대학 내 MBA 강의시간을 취재해봤다. 교수의 일방적 강의는 약 15분 정도로 간단한 브리핑 수준이었다. 이윽고, 자유롭게 조별 토론이 이어졌다. 오늘은 각자 창업을 하여 실제로 운영해보는 '사업전략시뮬레이션' 수업. 실제 창업을 하면 어떤 부분들이 갖춰져야 하고, 어떤 고민들을 해야 하는지 학생들은 각자의 역할에 맞춰 열린 토론을 한다. 교수는 그룹별로 돌아보며 사업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문제는 뭘지 물어보고, 함께 고민한다. 심지어 학생들이 만든 기업은 서로 경쟁도 하고, 협업도 해본다. 연구, 개발, 마케팅 등

대해 공부를 한다. 그러나, 경전을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의심을 품고 질문을 하고 해답을 찾아간다. 서로의 의견이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의 폭을 좁히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한다.

서로가 질문을 제시해주며 함께 풀어나가는 안내를 맡는다. 선생님, 즉 랍비는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간혹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필요한 답을 주곤 한다. 실제로 랍비들은 학생들 틈바구니 안 곳곳에서 학생들과 함께 그야말로 난상토론을 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유대인들은 이곳 예시바에서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법을 배우고, 자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문제라고 배운다. 심지어 미래에 그들의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 건지도 가르친다. 예시바에 들어가서 취재팀에게 학생들은 끊임없이 질문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의문을 품게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 같았다. 유대인들의 학습법은 한국의 학습형태와 전혀 다른





# World Education



다양한 내용들을 체크해 가며 토론하는 학생들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다. 학생들은 이런 창업시뮬레이션 수업을 통해 창업의 과정을 경험하고 의견 조율을 통해 성공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학생들을 취재하다 보니 이 중 누군가는 몇 년 지나지 않아 글로벌기업의 CEO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확신이 든다.

## 7. 첨단기술의 교육장, IDF

이스라엘 군대는 그야말로 최강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마치 로봇캡이나 터미네이터 같은 군인들이 많은 걸까. 바보같은 상상을 하며 그토록 촬영허가가 힘들다는 군대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방문한 곳은 텔아비브 인근 육군기술훈련소. 수많은 군인들이 이곳을 통해 기초적인 기술교육을 받는다. 우리가 찾아간 곳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교육장. 아직은 17살에서 18살 정도로 어린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단체로 교육을 받고 있었다. 분위기는 외국 촬영팀이 와서인지 많이 심각하지는 않았고, 장교들의 철저한 감시 속에 촬영이 진행되었다. 3명의 군인과 인터뷰가 가능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군대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첨단 기술의 습득과 활용이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군대는 최첨단 기술로 무장 되어 있다. 정보부대에서 근무했던 샤이 그린은 군에서 배운 프로그래밍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창업을 해 성공을 했다.

수백만 달러의 장비와 기술을 가지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볼 수가 있다고 말한다. 군대이기에 오히려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또한, 군대에서 얻은 기술은 결코 외부에서 얻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안다. 기술교육의 정점이 오히려 군대가 되는 엄청난 진리가 이스라엘 군대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르게 복무기간이 창업을 위한 철저한 준비단계로 까지 여겨지고 있다. 특히 최고 엘리트를 육성하는 탈피오트 특수부대는 눈여겨 볼 대상이다. 매년 50명만 선발하는 최정예 특수부대인 탈피오트는 복무기간이 무려 9년이지만 입대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탈피오트 복무자는 하이테크 벤처업계에서 하버드대 출신 이상의 대접을 받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세계 수준의 하이테크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군사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주저없이 말한다. 앞으로 국군도 이스라엘 군대처럼 첨단 군대로 개선해 나간다면, 군대는 더 이상 기피의 대상이 아닌 미래를 위한 도전과 기회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

## 8. 벤처육성의 진수, 인큐베이터

25개 국어로 번역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창업국가'는 이스라엘 유명 저널리스트인 사울 싱어가 공동 집필했다.



출간 후 그는 일약 국제적인 창업 멘토로 떠올랐다. 그는 이스라엘이 창업국가가 될 수 있었던 바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계급이나 규율을 좋아하지 않고 토론이나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고 질문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점은 창업 국가로서 매우 좋은 성격들입니다. 창업 기업가들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 서로 합의점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가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이 교육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말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벤처창업을 준비하는 과정보다는 이미 창업초기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이스라엘 경제부 수석과학실에서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의 책임자를 만날 수 있었다.

요시 스몰러 국장은 약 3년 간 정보기반시설, 즉 사무실, 연구실, 장비 일체, 관리 서비스와 회계 법률 서비스까지 모든 상업적 지도와 기술 지도를 지원해 준다고 말한다. 심지어 잠재적 소비자나 투자자 게다가 전략적 파트너까지 연결해 준다니 놀랄 뿐이다. 이 환상적인 지원이 모두 무료란다. 자격만 갖추고, 심사에 통과하면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원해 준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요시 스몰러 국장은 1991년에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현재까지 1,700개 이상의 신규 기업의 창업에 도움을 줬다고 한다. 그리고, 그 수많은 기업은 여전히 활발한 기업 활동 중이다. 이스라엘 내 생명과학 분야의 신규업체 70%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부의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생명과학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취재를 마치며 돌아오는 길에 머릿 속을 맴돌았던 단어는 수많은 단어 중에 딱 2개였다. ‘후츠파’와 ‘로시가돌’. 두 단어가 아마도 이스라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아닐까. 이스라엘 저널리스트로 30여 년간 활동해온 미키 몰라드씨는 “‘후츠파’는 어느 다른 나라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고유의 단어입니다. 번역하고 싶다고 해도 번역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탐구하다 보면 항상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라고 의미의 깊이와 넓이에 비해 짧고, 명쾌하게 설명 해준다. 또한 창업국가의 저자 사울 싱어는 로시가돌에 대해 이렇게 정리한다. “로시가돌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무엇이 있는 지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지시를 내리거나 말을 하기 전에 미리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후츠파의 도전정신과 로시가돌의 혁신적 책임의식은 이스라엘을 그토록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수많은 아이디어로 성공신화를 쓰며 세계 경제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스라엘의 힘은 결국 후츠파와 로시가돌에 의해 이뤄지는 유대교육에 있지 않을까. 오늘도 그들은 끊임없이 도전과 혁신을 무기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방에 적용하고,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 ✨



# World Education



## 교사의 시간은 학생들을 위해 가장 많이 할애되어야 한다.

클

김은영

영국 홀트 공립 중고등학교 수학 교사

### 1. 들어가며

영국 교육에 관한 원고를 부탁하시는 이메일을 받고, '영국의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써보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다. 회신으로 온 '원고집필요청서'에는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영국교사들'이라는 가제가 붙어 있었다. '아, 한국은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게 도덕적인 관점의 헌신이었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가제였다. 나는 교사에게서 도덕적 헌신을 기대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사들이 있고, 그 모든 교사들이 투철한 도덕성과 희생정신으로 아이들을 대할 거라는 망상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직업이 직업이니 만큼 '나는 단순히 내 직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 뿐이다'라는 태도로 교사를 하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내가 이 아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니까 더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진 교사들이 대부분일거라고 나는 믿고 있고, 주변에 있는 교사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다. 프로페셔널한 직업관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이 어떤 분





야에서 일하던 간에 직업을 가진 성인이 할 일이다. 교사는 직장으로 다니는 곳이 어린학생들이 공부하러 오는 장소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변화를 가져오고 학교의 시스템을 바꾸게 만든다. 인간의 도덕성에 기대는 시스템은 효과적일 수 없다는 사실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한 마디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일은 헌신적인 교사만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누구나 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영국의 시스템이 효과적이고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한국과는 많이 다른, 8년간 경험한 영국의 시스템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 2. 감시제도

현재 한국 학교에서 얼마나 학생들의 숙제 검사를 하는지 나는 모른다. 한가지 확실한건, 영국 교사들이 학생들의 숙제 검사에 할애하는 시간은 '한국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라는 것이다. 이제 교사를 '개인의 도덕성'에 의지해서 볼게 아니라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인'으로 봐야 한다는 것과 연계해 설명해 보겠다.

영국은 내신 성적제도가 없다. 정부 시험만 잘 보면 된다. 숙제를 안한다고 해서 내신성적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니 학생 입장에서 본다면 숙제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일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교사 입장에서도 숙제검사 같은 따분한 일은 안 해도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교사의 책임완수를 도덕성에만 의지 한다면, 아이들 숙제 검사는 제일 뒷전으로 밀어놔도 되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 교사들은 숙제

검사에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그들이 '학생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이기 때문일까?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이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하나 못하나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듯, 영국도 교사가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영국에는 Ofsted 라고 해서 한국으로 치면 장학사단 같은 것이 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아주 방대하기에 지면상 여기서 상세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들이 하는 일 역시, 한국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세하다.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학사단이 학교를 학업성과 위주로만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장학사단은 오후 2시쯤 학교에 전화를 해서 '내일 당신 학교를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한다. 영국 학교가 제일 두려워하는 전화 한통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이들이 학교에 와서 하는 일은 매우 많지만(보통 2일에서 3일 머문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교사의 수업이다. '지식전달 위주의 설명식 수업'을 가장 나쁜 수업으로 평가하는 영국에서 이들이 중점적으로 보는것은 '얼마나 활발한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지는지, 학생들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배우는지'이다. 수업에 무작위로 들어와 짧게는 30분 정도, 보통은 1시간 전부를 관찰한다. 1시간을 관찰 할 경우는 교사에게 수업등급을 준





# World Education

**[사진 1] THE HOLT SCHOOL LESSON OBSERVATION PROFORMA**

TEACHING		Overall						Ped Pack No.	
1. Subject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verall							
		Satisfactory		Good					
Subject Knowledge	a) The teacher has sufficient knowledge to enable them to deliver the content of the lesson	a) The teacher has a good knowledge of the subject content and is able to apply it to promote effective learning							2
Content	b) Subject content is appropriately pitched to the age and ability of the students and there is evidence of effective planning	b) Subject content is well matched to the students needs in terms of their age and ability							
2. Teaching Approaches		Overall							
		Satisfactory		Good					

다.(outstanding, good, satisfactory, inadequate 이렇게 되어 있다. 교사들이 장학사단이 오면 가장 긴장하는 부분이 이것이다 사진 1 : 단순히 등급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항목들을 수업시간에 중점적으로 보는지 기준표 같은것이 4장 정도 세세히 적혀 있다. 사진은 학교내부에서 수업 관찰때 받은 등급이다. 맨 마지막 장은 관찰자가 시간 순서대로 빠곡히 적은 내용이 2페이지 정도 들어가고, 관찰자와 피관찰자가 서명하는 란이 있다) 장학사단은 수업을 보면서 학생들의 노트도 보는데, 학생들의 노트가 제대로 마킹(단순한 채점이 아니기 때문에 영국에서 쓰는 말, marking이라고 하겠다)되어 있는지, 교사가 피드백을 제대로 주었는지를 본다. 평소에 마킹을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장학사단이 불시에 오기 때문에 영국 교사들이 마킹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건 지나친 감이 없지 않지만, 불성실한 교사를 덜 불성실하게 만드는 시스템 중 하나라고는 말할 수 있다.

### 3. 마킹 없이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

사실, 불시에 들이닥치는 장학사단이 무서워 학생들의 과제를 마킹한다고 하는 교사는 영국에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마킹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work(학생이 수업시간에 한것, 숙제로 한 모든것을 통틀어 'work'라고 한다.)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학생들을 향상시킬수 있는지, 영국교사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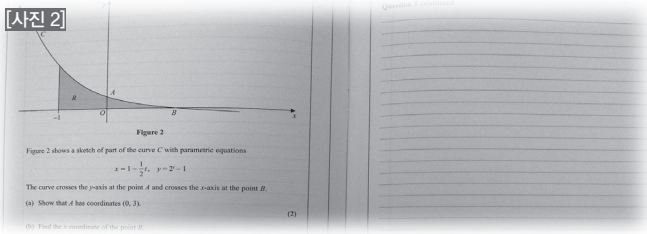
영국 학교는 학기초에 학생들 시간표가 정해지면, 며칠후 숙제 시간표가 나온다. 학생들의 시간표를 고려해 숙제 시간표를 만들기 때문이다. 국영수 뿐 아니라 지리, 음악, 요리 등 모든 과목에 숙제가 있다. 숙제가 하루에 몰리면 학생들이 버거워하고, 제대로 된 숙제를 내놓지 못한다는 생각하에, 교사들이 정해진 날에만 숙제를 주도록 하는 것이다. (숙제가 너무 많아 아이가 잠을 제대로 못자서 다음날 학교 생활에 지장을 준다고 항의전화하는 부모들도 가끔 있을 정도다.) 8학년이라고 치면(우리나라 중1, 2학년) 수학 숙제 같은 경우 일주일에 두번, 30분 정도에 할 수 있는 양만 줄 수 있다. 학년이 올라가면 숙제시간도 늘어난다. 학생들은 모든 숙제와 제출날짜를 기록할수 있는 학교 다이어리가 있고, 그 다이어리에는 하루에 보통 3과목 정도의 숙제가 적힌다. 자기 시간 관리를 잘해서 정해진 날에 숙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가이드 해주고, 체크하는게 교사의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다.

영국의 정부시험은 전부 주관식이다. 몇 문단씩 서술형으로 써야하는 과목들도 아주 많다. 이런 서술능력, 에세이를 쓰는 기술은 짧은 시간에 혼자 터득할 수 있는것이 아니다. 수업시간 뿐 아니라, 과제를물 주고, 교사가 일일이 읽어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에세이를 쓸 수 있는지 피드백을 주는 과정을 거쳐야만 학생들이 향상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의 work를 체크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는 교사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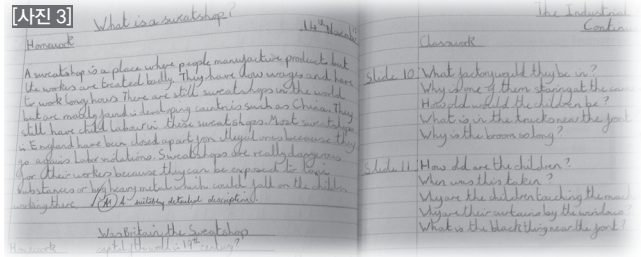


하게 되는 것이다. 수학수업을 예로 들어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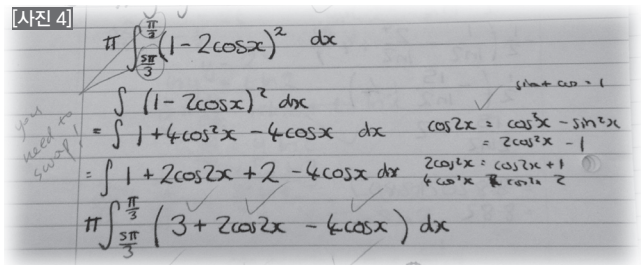
나는 현재 7학년부터 13학년까지 가르치고 있다.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이다.(영국교사들은 일정한 학년을 여러반 가르치는게 아니라, 한 학년에 한 반씩 가르친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것이, 폰 식을 논리정연하게, 누가 봐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폰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답을 쓰라는 것이다. 숙제를 내주었는데 답만 써오면, 제대로 된 숙제가 아니라고 다시 해오라고 한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수하시험문제가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논리정연하게 방법을 보이는 점수 따로, 정확한 답에 대한 점수가 분리되어 있다. 방법은 맞았지만, 단순 계산이 틀려서 최종 답이 틀리면 방법 점수를 받게 되어 있다. 중학교 1학년 수학은 식이 매우 단순하지만, 고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는 한 문제를 풀기 위해 보인 식이 한 페이지가 될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수하시험지도 얇은 노트 같이 되어 있다. 답을 쓰다가 실수할 걸 감안해 충분한 페이지가 답을 쓰는 공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2, 수학 문제의 예, 보통 20페이지, A4 크기의 노트처럼 된 시험지가 전형적인 영국의 시험 문제지이다. 수학 뿐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그렇다 시험은 무조건 볼펜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면 줄을 그어 버리고 다시 푼다. 그래서 답을 쓰는 공간이 넉넉히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폰 식을 일일이 읽어 보고,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해 주고, 제대로 된 방법을 빨간펜으로 써주며 마킹을 하는 일은 단순 작업이 아니다. 고등학생들에게 10문제의 숙제를 주면 대략 7페이지 분량의 답을 쓴다. 한반에 15명이라고 감안하면(최종 2년간 공부하는 기간은 수학이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한반에 20명이 안된다.) 교사는 숙제 한번에 빨간펜을 들고 최소 100쪽은 봐야 한다는 얘기다. 고등학교 한반을 일년동안 가르치게 되면 이렇게 체크해야 될 숙제와 시험이 20번 정도 된다. 점수가 안좋은 아이들은 점심시간에 불러, 취약한 부분을 따로 가르쳐 준다. 고등학교 수학반은 두 반정도 많으니까 40번이다. 고등학교 수학반 뿐 아니라 7학년부터 11학년 숙제까지 있으니, 서론에서 말했듯 영국 교사들이 work 검사에 할애하는 시간은, ‘한국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양’이라는 것이다. (사진 3. 지리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한 예, 사진4,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수학 숙제 검사를 한 예이다.)







# World Education

교사가 열심히 한 마킹을 제대로 보지 않고 무시해 버리는 학생들도 꽤 있어서 '내가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마킹을 했을까' 허무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런 마킹 과정을 통해 교사인 나는,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지, 어떤 점을 이해 못했는지 알 수 있고, 그래서 다음에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강조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다. 또한 학생들이 정부 시험을 봤을 때 대략 몇 점을 받을지 거의 90프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나는 한국에서 잠깐 학원강사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선생님들이 하듯이 설명식 수업을 했다. 수준별로 나눠지도 않은 반에서 설명식 수업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수업이었는데, 나는 영국에 와서 학생들의 숙제를 마킹하면서 깨달았다. 또한 질문과 답이 수없이 오가는 토론식 수업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다. '아이들이 이런걸 모르는 거였는데, 내가 한국에서 아이들에게 무작정 설명만 한 거였구나..' 하면서.

## 4. 숙제 기록

영국교사들은 숙제 검사를 하면 그걸 일일이 마킹 기록부에 적어 놓는다. 이렇게 적어 놓은걸 누가 체크하지는 않는다.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다. 숙제를 안해오는 아이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숙제를 하게끔 만드는 목적(이렇게 끝까지 추적하지 않으면 숙제는 안해도 되는게 되버린다.), 학부모 미팅(일년에 한번은 꼭 모든 과목 담당 선생님과 미팅을 하는 날이 있다)때 아이가 얼마나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지 부모들에게 알려주는 목적,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향상을 보이는지 알기 위함이다. 심지어는 교사 회의 때, '아무개가 지리 숙제를 자꾸 안해온다. 그래? 내 수학숙제도 빼먹었는데? 뭐야, 내 영어숙제도 지금 밀

려 있어' 이런 대화를 숙제 기록부를 보면서 나누게 되고, 한 학생이 이렇게 대부분의 과목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면 학년 주임이 나서서 집에 전화를 한다던가, 혹시 아이에게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조사를 하기도 한다.

숙제검사를 할 때는 과목특성에 맞게 마킹을 하는데, 지금 있는 학교의 수학부서에서는 정확도 1부터 10까지, 그리고 노력점수 ABC 를 준다. 7B 라면 푼 문제중 70퍼센트가 맞았고, 중급 정도의 노력을 한게 보인다는 의미이다. 0A 도 가끔 주는데, 문제를 정말 열심히 푼 흔적은 보이는데 이해를 잘못해서 모든 답이 틀린 경우이다. 물론 이렇게 마킹을 할 때는 노트에 어떤 것을 잘못 이해해서 답이 틀리게 된건지 피드백을 써주고, 아무개야, 점심시간에 날 찾아와라, 따로 설명을 해주겠다... 그런 멘트를 적어준다. 정말 열심히 한 숙제에는 유치하긴 하지만,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심지어는 고3학생들까지!) '참 잘했어요' 그런 스티커를 붙여주기도 한다. (사진 5. 한 수학 교사의 마킹 기록부이다. 학생의 이름 옆에는 작년에 학생이 달성한 레벨과 올해의 목표가 적혀있다. 그 목표에 해당되는 수학을 주로 가르치고, 좀더 도전적인 주제들을 수업에 포함시킨다. 출석체크랑 숙제 체크를 같이 해서, 아파서 결석을 하지 않은한 반드시 숙제를 해오도록 한다. 수열숙제가 언제 나갔고, 거기에 준 노력점수 ABC, 10점 만점에 몇점,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다.)

**[사진 5]**

na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you drive - document												
John Markson												
gary elliot												
richard brown												
oliver davis												
Arzoo Shah												



사진 6

In five others. Three bunk beds, no chairs, no clothes on the nails in the wall and climb up, too tired to talk to anyone.  
tomorrow. It's usually six days a week, but in this busy town seven. She wonders about the people who buy the clothes they could see her and her life, what would they think? she could give up and go home. But she can't. She must work in the village.



Figure 3 Rosa's day working in the sweatshop

What is a 'sweatshop'? A sweatshop is a factory where clothes get made but can sometimes be dangerous and it has advantages + disadvantages.  
What is Rosa's job? Rosa's job is to sew the clothes together.

Because they have to buy presents and longer hours.  
vi. "Today's sweatshops are just like Comment on this statement?"  
I think this is true. Can be very dangerous. Workers don't even get times the conditions.

## 5. 제도가 시스템을 바꾼다.

언제든 장학사단이 올지 모른다는 가정 하에 영국 학교들은 학교 자체 내에서 장학사단이 하는 일과 비슷한 감찰을 한다. 말하자면 모의 감찰이다. 물론 단순히 감찰을 위한 감찰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학교의 발전을 위함이다. 학과 주임이 아이들의 노트를 샘플로 걷어 보고(이렇게 노트를 걷을 때도, 공부 잘 하는 학생, 중간, 하위, 골고루 포함 시킨다.) 교장선생님이 아이들의 노트를 무작위로 뽑아 걷어 보는 식이다.(일주일 정도 전에 미리 알려준다. 샘플로 노트를 걷고 그 학생들과 인터뷰를 할 것이라고. 학생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담당교사에 관해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진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교사가 제때 마킹을 하고 제대로 된 피드백을 주는지 당연히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매년 교장, 교감, 부교감, 학과 주임들은 교사의 수업을 정기적으로 관찰해서 장학사단이 등급을 매기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등급을 준다. 교장도 수업이 있다면 관찰 대상이다. (영국에는 수업을 하는 교장이 꽤 있다) 전부 주관식인 영국 시험은 학생 한명한명에게 피드백을 주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 학생들은 잘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막막해 한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흔히 기대하는 그런 헌신적인 교사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맡은 업무라도 완수하려면 학생들에게 할애하는 시간이 많을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진6. 지리 문제의 예, 답을 쓰게 되는 공간이 아주 넓다. 사진에 있는 지리 문제는 8학년의 예인데, 고등학교 지리 문제 답은 한문제당 두페이지 넘게 답을 쓰기도 한다.) 정부시험이 아닌, 영국 학교 내에서 치뤄지는 시험 기간.(다시 말하지만 내신성적 반영, 그런건 없다. 최종적으로 정부 시험을 잘 보기위해, 꾸준한 향상을 보이고 있는지 알기 위해 보는 시험이다) 교사들은 어마어마한 양의 주관식 답안지를 채점하느라 피곤이 극도에 달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안쓰러운 마음을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한다. '저는 수학을 가르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몇페이지씩 쓴 에세이, 그 많은 걸 언제 다 채점해요!'

## 6. 글을 마치며

영국과 한국의 교육 여건은 모든 면에 있어서, 남극과 적도만큼 다르다고 해야 하나..., 적절한 표현을 찾을 길이 없을 만큼 다르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컴퓨터가 채점한 객관식 시험, 앞에서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수업만으로 교사는 '학생들이 무엇을 이해 못하는 건지' 잘 알 수 없다는 것이 나의 경험이다. 학생들이 한걸 체크하면서 교사와 학생이 발전할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다. 그 사실은 간과되면 안 된다. 한국 교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시간이 확보될 수 있기를,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



# World Education



## 세계 금융 · 패션의 중심에서 한글을 외치다

### 주 뉴욕 한국교육원

글  
·

김윤기

교육부 교육연구사

6월. 햇살이 따갑지만 야외활동하기엔 좋은 날씨다. 최근 등산이나 강변을 걷는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일부는 경기장에서 구경을 즐기기도 한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야구장을 찾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지금은 야구구축을 모르는 사람이 적지만, 프로야구가 생기기 전만해도 야구구축은 일부 남성들의 전유물

이었다. 1982년 6개 구단으로 출범한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국내 최초의 프로 스포츠로 출범 시 논란도 있었지만, 이젠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프로야구의 본고장 미국은 1869년에 시작하여 현재 30개 구단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중 최고의 명문 구단은 바로 뉴욕 양키스다.





100년이 넘는 역사에 월드컵 우승만 해도 27회에 이르는 등 미국 프로야구의 상징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도 양키스의 로고인 N과 Y가 겹쳐진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뉴욕, 양키스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센트럴파크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자유의 여신상, 케네디 국제공항, 세계 증시의 심장 월 스트리트, 카네기홀, 브로드웨이 등 미국 속의 미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금융과 문화 · 패션의 중심지다.

매년 약 4천7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인종의 전시장이라 할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뉴욕으로 불리는 뉴욕 주민 중 37%는 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왔으며 약 170여 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과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들 역시 LA에 이어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십만 명 이상이 살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1981년 뉴욕한국교육원을 설립하고 뉴욕을 포함한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등 미 동북부 5개주 유학생의 교육지원과 이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35만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 1. 한국계 입양인을 위한 한국어강좌 개설

고향을 그리워하고 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은 본능과 같은가 보다. 여우가 죽을 때 자기가 살던 굴 언덕 쪽으로 머리를 둔다는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는 말이나, 연어와 송어가 귀소본능(歸巢本能)에 따라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 알을 낳는다는 것을 보면 이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지

만, 유독 한국인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조상을 찾는 DNA가 강한 것 같다. 우리는 명절 때마다 고향을 향한 귀향행렬과 본관을 묻고 조상의 업적을 자신의 일인 양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 뉴욕에서도 조상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총영사관 한국교육원이 해외 입양인들을 위한 초급 한국어강좌를 개설했다.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고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지만, 한국어를 배울 수 없는 환경에서 성장해 온 입양인들이 마음처럼 한국동포들과 어울리거나 한국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일부 입양인들은 개인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도 하지만, 강사료와 강의실 등에 대한 부담으로 꾸준히 지속되긴 힘든 실정이었다. 이에 한국교육원 이석 원장은 2010년 11월 4일부터 한국계 입양인 단체인 Also-Known-As 회원들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한국어강좌를 개설했다. 이번 강좌에 참석한 Marissa Martin 양은 한국계 입양인을 대표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번 강좌를 개설해 주신 총영사관에 두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이번 강좌가 한국에 대해 알아가는 작지만 큰 발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맨해튼 34번가에 위치한 예술교육센터 강의실에서 2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한국어강좌는 Rutgers대학교에서 한국어 전임강사로 근무중인 정지영 씨가 강의를 맡아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 강의에는 입양인뿐만





# World Education



아니라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등에게도 문을 열어 누구나 수강할 수 있게 했다. 생활 속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 한국교육원에서는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한국어강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수강료를 납부하게 하고 있다. 사실 수강료 징수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크게 부담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기당 100불의 수강료를 납부하게 하였다. 하지만 납부한 수강료는 수강생들을 위한 문화행사비 등으로 다시 환원시킴으로 강좌의 질 담보와 함께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강생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한국계 입양인 모국방문행사 기간 중 자신의 생모를 만나고 온 직후부터 자신의 생활에서 한국어 수강이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고 말하는 등 초급 한국어강좌 수강생들의 학습 열의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 결과 첫 해 입학한 초급 과정생 15명 중 10명이 중급 과정으로 올라가 지금은 맨해튼 예술교육센터에 초급 한국어과정과 중급 한국어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그 외에도 재외동포와 외국인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급강좌가 뉴욕한인교회에서, 올 2월부터 순수 외국인을 대상으로 초급강좌가 뉴저지 지역에서 개설되는 등 2012년 기준으로 봄학기에만 뉴욕한국교육원 관할 3개 지역에 4개의 한국어강좌가 개설되었다. 이처럼 입양된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뒤에는 아들

딸의 고향찾기를 도와준 입양인 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이석 원장은 말했다. 뉴욕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한국어강좌 수강에 관심있는 분은 이메일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뉴욕총영사관 한국교육원([www.nykoredu.org](http://www.nykoredu.org) T.646-674-6047,6051 [edu@koreanconsulate.org](mailto:edu@koreanconsulate.org))으로 신청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2. 뉴욕주립대 스톤브룩에 한국어 교사양성과정 신설

한국어 보급은 재외 한국인이나 입양인 등 한국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보급이 더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현재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나,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교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 결과 타 과목 자격을 소유한 교사가 한국어 교수 자격 연수를 받은 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전문성에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뉴욕교육원은 미국 내 정규 중·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담당할 교사양성에 나섰다. 미국 동부지역 최초로 뉴욕주립대 스톤브룩(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한국학과 내에 한국어교육전공을 신설하고 뉴욕한국교육원과 뉴욕주립대가 공동으로 운영기로 한 것이다. 약 1년간 협의과정을 거쳐 2012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사업비 143만불 중 뉴욕교육원이 32%에 해당하는 47만불을 부담하고 뉴욕주립대는 96만불을 부담하여 운영하며, 5년간



의 공동사업기간이 끝난 후에는 뉴욕주립대에서 100% 부담키로 한 것이다. 2012년 4월 뉴욕주립대 총장과 MOU를 체결한 이석 원장은 “이 조치로 미국 정규학교에 한국어 채택이 확대되고 있는데 비해 부족했던 한국어 교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어 교사가 각급 학교에 배치된 후엔 한국어 세계화 사업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주립대와 MOU엔 2012년부터 학과개설을 시작하고 2014년부터는 최소 10명 이상의 한국어 전공생을 선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과목 교사의 안정적 공급이 확보된 것이다.

### 3. 한글학교에 맞춤형 한국어교재 보급 및 연구시범학교 지정으로 질적 변화를

이곳 뉴욕 한국교육원이 관할하는 한글학교의 질적 변화가 시작되었다. 변화의 시작은 한국어교재 개선에서 출발되었다. 사실 영어권에 적합한 한국어교재 개발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였다. 기존 한글학교에서 사용한 한국어

교재가 전 세계 한글학교에 공통으로 사용토록 개발됨으로 현지사정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영어권 맞춤형 교재개발에 나선 뉴욕 한국교육원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에 걸친 연구용역을 통해 미주지역 한글학교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교재 3~6권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영어권 맞춤형 교재에서는 교재 속의 지시문을 영어로 제작함으로 일부 외국인 학부모들이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뉴저지 ‘사랑한국학교’ 박지연 선생님은 “교재에 사용된 삽화도 친숙한 그랜드캐니언이나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등장인물도 미국인들 중심으로 함으로써 현장감을 높였다”고 말했다. 초급과정에 재학 중인 Kaitlyn O’connor 는 “전체적으로 교재색상이 밝고 영어설명이 병기되어 있어 좋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롱아일랜드한국학교 3학년인 김윤재 학생도 “한글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떻게 공부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교재에 적힌 영어 발음으로 배우니까 자음 모음을 쉽게 따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림과 영어가 많이 나와 있어서 단어 공부도 쉬웠고 한글 배우기가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며 웃으며 말했다. 학부모 최숙희 씨도 “〈문화배우기〉 영역을 통해 한국문화와 타 문화를 비교할 수 있고 본문의 예문들이 영어로 설명되어 집에서 도울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다”며 “계속해서 고급과정까지 교재가 개발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콜롬비아대 교수, 한글학교 교사 등 뉴욕 지역 한국어 전문가 3명이 동참한 이번 교재는 2012년 3월부터 일부 한글학교에서 시범 사용된 후, 9월 학기부터 대부분의 한글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많은 재외 한국교육원이 한글학교에 교과서 지원과 운영비 일부만 지급하는 등 소극적 행정을 펼쳐온 계







# World Education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한글학교가 현실에 안주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이 원장은 “지금까지 뉴욕한국교육원이 한글학교 159개에 학생 9,929명, 14개 현지 정규 초·중등학교에 개설된 한국어과목 한국어 수강생 1,391명을 대상으로 동포교육용 교재와 교과서 지원 등 양적 성장위주의 행정을 펼쳤다면 이제는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규학교와 달리 주말을 이용해 한국어/한국문화/한국역사를 배우는 주말한글학교는 외부평가가 없다보니 우수 학교 운영을 위한 외부 동기부여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 원장은 뉴욕교육원 관할 159개 한글학교를 대상으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여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동포 자녀에 대한 정체성교육 및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현대인물, 발전한 대한민국상을 교육하는 ‘역사교육 시범연구학교’를 계획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3개의 우수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1년 후 평가를 거쳐 우수 운영학교에 대해선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시범학교 운영 결과는 한글학교 교사연수회 등을 통해 타 한글학교에 전파하여 재외 한글학교의 교육력 제고

에 활용하고, 지역적 폐쇄성에 갇혀 있던 한글학교에 우수 교육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였다. 향후 한글학교를 통해 한국의 역사 뿐만 아니라 한국윤리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교육체제 등으로 점차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4. 세계 금융의 심장이자 패션의 출발지에서 울려 퍼지는 한국문화

미국의 뉴욕, 세계 금융의 심장이자 패션의 출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때 탐욕의 상징이기도 했던 월가(wall street)는 미국의 성장과 그 역사를 함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국인들의 삶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월 스트리트’라는 영화도 이런 미국인을 잘 표현하고 있다. 영화에서 고든 게코로 나오는 마이클 더글라스는 ‘탐욕은 좋은 것’이라는 신념으로 감옥까지 갔다오지만, 결국 가족을 찾는다. 누구나 돈을 좋아하지만 가족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의 저력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준다는 데 있다. 무질서한 듯 보이면서도 체계 잡힌 시스템은 외부의 위협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근간이 되고 있다. 9. 11 사태로 한때 상당수 미국인들이 충격으로 혼란에 휩싸였지만, 그 날 희생자를 구하고 이름 모를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리며 더욱 굳건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 사실 한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역사가의 일이지만, 지키는 것은 이름 없는 병사들이다. 또 역사책에 기록되는 것은 이름난 장군들이지만, 그 역사를 만드는 것은 이름 없는 병사들이다. 그러므로 위기에 강하고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는 이들 이름 없는 병사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영웅



적인 행동을 찬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9. 11 사태 때 있었던 이름 모를 시민들의 영웅적 행동을 기억하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멋진 일이다.

뉴욕주에는 약 1,700여 개의 학교에서 1,100,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그 중 3분의 1이 다른 나라 출신이다. 뉴욕주 공립학교 교육의 특징으로는 모든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용, 음악, 연극, 시각 예술 등의 즐거움과 매력을 느끼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 학생들에게 예술의 즐거움을 알게 해 주는 것은 평생의 친구를 만들어 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또 모든 학생들이 영어로 읽고 쓰며 이해능력을 기르도록 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 교육에서도 학생들의 체험활동과 동아리를 통한 자율활동 그리고 방과후 체육활동이 강조되고 있듯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수업중, 아침시간과 방과후 활동시간에 다양한 피트니스 프로그램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뉴욕시의 과학 교육과정은 자연과 직접 접할 기회를 통해 주변의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학습의지를 갖도록 하는 데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적절한 과학 용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적 처리능력 및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다.

또 영어권 국가이지만 학생들에게 영어 외에 최소한 1개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하고 있다. 개설된 언어로는 아랍어, 벵골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일본어, 라틴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외에도 몇몇 나라의 언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에 한국어도 당당히 올라가 있다. 외국어 수업은 대부분 뉴욕시 중

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제공되지만, 이원언어(Dual Language) 프로그램의 경우, 유치원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원언어 프로그램이란 영어와 영어에 능숙한 학생과 영어를 배우는 학생이 해당 모국어를 사용하며 학습하는 학습 향상 프로그램으로, 영어능력 향상과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익히는 WIN-WIN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특수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과 영재아동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돕기 위한 학업 중재 서비스(Academic Intervention Service) 등을 통해 출신과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최적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흔히 미국이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교육의 힘이라고 한다.

아이비리그로 상징되는 유수의 대학들이 미국을 떠 받치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주에만도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을 비롯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을 배출한 콜롬비아대학, 디자인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일컬어지는 '파슨스디자인 스쿨', 음악쪽의 '줄리아드 스쿨' 등 180여 개의 대학이 있다. 인재의 블랙홀이자 기회의 땅 미국 뉴욕으로 지금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걸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맨해튼을 향한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그곳 뉴욕에서 한국문화가 울려 퍼지고 있다. ✨

>>> **New York의 유래** : 1624년 네덜란드 초대 총독이 인디언에게 맨해튼의 남단을 약 24 달러를 주고 교환한 뒤 뉴 암스텔담이라는 네덜란드 식민지로 있다가, 1664년 영국령으로 바뀌었다. 당시 영국왕인 찰스 2세가 동생인 York 공작에게 이곳을 선물로 주자, York 공작이 영국에 있는 자신의 영지와 구분하기 위해 새로운 영지라는 의미로 New York이라고 명명하면서 불리게 되었다.





# 창의적 융합 인재 육성과 창업지원을 위한 대학혁신방안

글

김미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실장

## I. 서론

경제성장으로 인한 개인소득 증대와 더불어 삶의 가치를 높이는 창조 상품과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면서 대외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유병규, 2013). 이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 시대의 도래로 미래사회에서는 전달된 지식이나 정

보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능력보다는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가치 있는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창의성을 우리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 기술과 ICT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의적 융합 인재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창의·융합 인재의 육성을 위해 대학에 거는 사회의 기대는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조사에 의하면(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2013)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자리 질적 개선, 창업 유도 등의 제도 마련과 지원, 불필요한 규제 개혁, 사회적 차별 해소 등과 더불어 창의적인 교육시스템 확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2012년 5월 현재 71.29%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차원에서의 인재 육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IMD의 대학 경쟁력이 2012년 31위로 아시아의 싱가포르(6위), 대만(24위), 홍콩(27위)에도 뒤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IMD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15세에서 29세의 청년 고용률은 2004년 45.1%에서 2011년 40.5%로 하락하고 있으며, 구직 단념자, 경계 실업자, 실망 실업자, 비발발적 단기 취업자, 취업 준비자 등의 청년층의 유사 실업자 1,033천명을 포함하면 청년층의 4분의 1이 실제 실업상태에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2). 특히 20대 후반의 경우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대학원 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경제활동을 미루는 대졸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창조경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의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통해 청년 창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대학에서의 창의·융합 인재 육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학혁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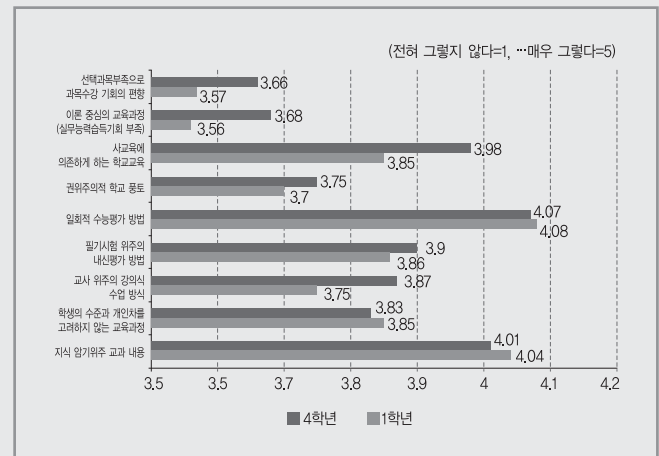
## II. 창의·융합 인재 육성 측면에서의 대학 현황 및 문제

### 1. 선발의 문제

#### 가. 고교-대학 연계의 부족

먼저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투입요인으로 고교-대학 연계

의 미흡을 들 수 있다. ‘대학 적격자 선발’이라는 측면에서 대학입시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고교 교육이 대학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는 잠재력과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학생의 수준과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는 교육과정, 지식 암기 위주의 교과내용 등과 같은 고교 교육 과정이 실제 대학의 창의 인재 육성과 연계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림1] 창의성교육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 최상덕 외(2011) 21세기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미래전략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나. 점수 중심의 선발

앞의 도표에서도 일회적 수능평가 방법이 창의 인재 교육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점수 중심 선발을 문제로 들 수 있다. 특히 객관식 선다형 수능의 경우 ‘열린 사고’를 통한 학생들의 창의성 육성과 같은 고교 교육과정의 목표 달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토론과 같은 다양한 수업방법의 활용을 방해하고 나아가 문제풀이식 입시 위주 교육을 조장하는 등, 고교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정광희 외, 2011). 이는 결국 대학에서의 학습에 필요한 교과



목을 선택하기보다 단순히 대학입시에 유리한 교과목을 선택하게 하여 대학에서의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 선발의 타당성 부족**

또 다른 대학에서의 창의·융합 인재 선발의 문제로 ‘선발의 타당성 부족’을 들 수 있다. 학생선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창의적인 학생선발 방법의 하나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었으나(김미란·정광희·박상규·임진택, 2010), 2013학년도 4년제 모집인원의 12.6%인 4만 7천여 명 정도만이 입학사정관제로 선발이 되고 있어 입학사정관제가 체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김미란 외, 2013). 이는 대학의 선발 인재상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집단위의 특성과 무관한 학생 확보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 교육과정의 문제**

**가. 창의·융합 인재 교육의 미흡**

대학에서의 창의·융합 인재 육성의 문제로 교육과정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지필시험에 의해 결정되는 학점구조, 체계화되지 않은 창의성 수업, 지식 암기 위주의 교과내용 등 대학의 교육과정이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임철일, 2011; 최상덕 외, 2011). 실제, 대학에서 길러야 할 핵심역량 중 전공지식, 논리적 사고, 학습능력 등과 같은 지식과 학습능력에 대해서는 대학교육을 통해 육성되고 있으나, 창의성, 리더십, 대인관계 능력, 가치관이나 태도 등은 대학교육에서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김동일 외, 2009).

〈표1〉 핵심역량이 길러지는 정도

단위: 명(%)

핵심역량	전혀 길러지지 못하고 있다	길러지지 못하고 있다	길러지고 있다	잘 길러지고 있다
전공지식	0(0)	16(10)	99(63)	43(27)
논리적 사고	1(1)	39(25)	110(70)	4(4)
학습능력	1(1)	20(13)	108(68)	29(18)
창의성	19(12)	86(59)	49(31)	1(1)
리더십	28(18)	107(68)	23(15)	0(0)
대인관계능력	24(15)	107(68)	27(17)	0(0)
가치관·태도	38(24)	97(61)	22(14)	1(1)

※ 출처: 김동일 외(2009). 대학교수가 바라본 고등교육에서의 대학생 핵심역량: 서울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나. 창의·융합 인재 육성 관련 교과목의 부족**

이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학에서의 창의 인재 육성 관련 교과목 부족을 들 수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에서는 그나마 공학과 교육 계열의 전공필수 과목에는 창의 인재 육성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나 교양과목에서는 창의

〈표2〉 창의성 관련 교과목의 교양 및 전공계열별 빈도

단위: 과목 수(%)

구분	계열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소계
전공	인문	2(22%)	2(22%)	5(55%)	9(100%)
	사회과학	1(5%)	5(25%)	14(70%)	20(100%)
	교육	2(33%)	4(66%)	-	6(100%)
	공학	8(6%)	86(70%)	30(23%)	124(100%)
	자연과학	-	-	-	-
	예술	5(15%)	12(36%)	16(48%)	33(100%)
	소계	18(9%)	109(57%)	65(33%)	192(100%)
교양	이수구분	기초교양	핵심교양(필수)	일반교양(선택)	소계
	소계	8(21%)	12(31%)	18(47%)	38(100%)
총계					230(100%)

※ 출처: 최인수 외(2012), 국내 대학의 창의성 교과목 현황 및 내용 분석: 상위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표3〉 교양·전공계열 교과목의 교수방법 빈도 분석

단위 : 빈도(%)

교수방법	전공계열						교양	총계
	인문	사회 과학	교육	공학	예술	소계		
강의	7 (29.2)	19 (27.9)	5 (29.4)	104 (28.2)	31 (32.6)	166 (29.0)	37 (35.9)	203 (30.0)
팀 프로젝트	2 (8.3)	8 (11.8)	3 (17.6)	89 (24.1)	11 (11.6)	113 (19.7)	11 (10.7)	124 (18.3)
발표	4 (16.7)	11 (16.2)	4 (23.5)	61 (16.5)	12 (12.6)	92 (16.1)	17 (16.5)	109 (16.1)
토론/토의	7 (29.2)	14 (20.6)	3 (17.6)	47 (12.7)	14 (14.7)	85 (14.8)	16 (15.5)	101 (14.9)
실습/실험	3 (12.5)	6 (8.8)	2 (11.8)	52 (14.1)	22 (23.2)	85 (14.8)	14 (13.6)	99 (14.6)
PBL	-	1 (1.5)	-	4(1.1)	-	5 (0.9)	1 (1.0)	6 (0.9)
기타 (e-learning 등)	1 (4.2)	9 (13.2)	-	12 (3.3)	5 (5.3)	27 (4.7)	7 (6.8)	34 (5.0)
총계	24 (100)	68 (100)	17 (100)	369 (100)	95 (100)	573 (100)	103 (100)	676 (100)

※ 출처 : 최인수 외(2012), 국내 대학의 창의성 교과목 현황 및 내용 분석 : 상위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인재 육성 관련 교과목 개설이 16.5%에 지나지 않고 있다. 서로 다른 분야나 특정 학문의 경계를 넘어 두 가지 이상의 영역을 결합함으로써 여러 학문을 넘나드는 연구를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과목이 부족한 상황이다(오현석 외,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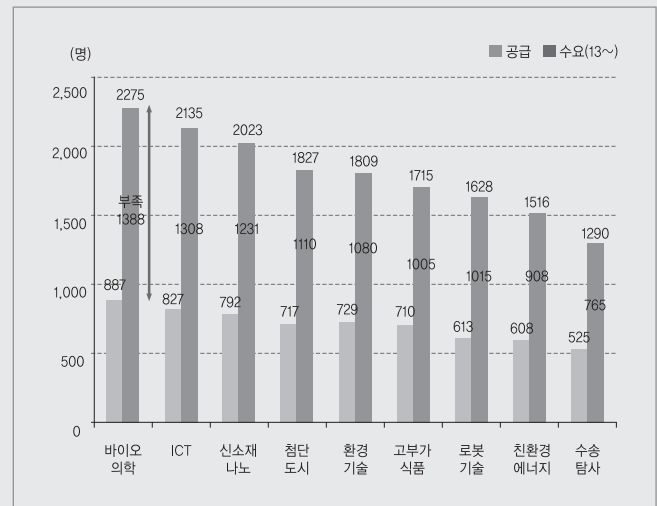
다. 교수 방법의 미비

이와 더불어 교수 방법의 미비를 들 수 있다.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모두 ‘강의’가 가장 높은 수업진행 방법으로 나타났으며 팀 프로젝트의 경우 전공과목에서는 19.7%로 많이 적용되는 교수방법이지만 교양과목에서는 각 10.7%로 상대적으로 낮다. 전공계열로 교수방법을 비교해 보면, 인문계열과 사회과학계열에서는 ‘토론 및 토의(각 29.2%, 20.6%)가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높았으며 공학계열에서는 다른 계열과 달리 ‘팀 프로젝트’(24.1%)가 두드러졌으나 전반적으로 강의 중심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3. 교육성과의 문제

가. 대학의 인재 양성과 국가 인력수급의 불일치

대학교육을 통해 창출된 창의·융합 능력은 곧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필요한 바이오의약, ICT기술, 신소재나노 분야 등의 인력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재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서비스업의 전체 고용규모는 2010년 2,741천 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3,003천 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44천 명씩 증가한다고 한다(이시균 편, 2011). 2013년 이후 2020년까지의 장기 전망을 보면, 바이오의약에서는 연간 1,388명, ICT기술에서는 연간 1,308명, 신소재나노 분야에서는 1,231명, 첨단도시 분야에서는 연간 1,110명 등, 연간 1만 명 가량의 핵심인재 부족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학 인재 육성체계로는 이를 뒷받침할 수학, 생화학, 전기/전자, 소재/재료 등과 같은 전공분야의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배성오 외, 2012).



[그림 2] 9대 유망산업의 장기인력 수급 전망

※ 주 : 각 수치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평균 인력 수요와 공급  
 ※ 출처 : 배성오 외(2012), 과학기술 핵심인재 10만 양병을 위한 제언





### 나. 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칭

뿐만 아니라 설사 고용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교육과 고용 간의 불일치로 인해 대학교육의 효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신규취업 전공과 기업직무 간 불일치는 물론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기업직무 간의 불일치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교육과 고용의 불일치

미스매치	4년제 대학 졸업		전문대학 졸업		전문계고 졸업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신규취업자의 전공과 기업직무 간 불일치 (전공단위 양적 불일치)	27	18.9	21	14.0	16	10.7
신규취업자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기업직무 간 불일치(질적 불일치)	21	14.0	30	26.0	23	15.3
전공을 망라한 구직자 수의 기업 수요 대비 부족 (학력 단위 양적 불일치)	18	12.0	32	21.3	75	50.0

※ 주 : 150개 기업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며 중복응답 결과  
※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2011), 학력별 노동시장 미스매치 분석과 교육제도 개선 과제

## Ⅲ. 창의·융합 인재 육성 및 창업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 1. 대학교육 투입의 과제

#### 가. 창의·융합 인재 양성 목표의 수립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기존의 획일적인 대학교육으로는 시대에 부응하는 창조적인 인재,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학의 특성화된 새로운 교육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그에 맞는 새로운 인재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 지식뿐 아니라 인문사회학적 소양 및 예술적 감수성까지도 갖춘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비전에 맞는 구체적인 인재상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나. 대학 적격자 선발제도의 개선

다음으로는 이러한 대학교육의 목표에 맞는 적격자 선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교 교육과 대학, 나아가 직업과의 연계 시점에서 대학에서의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통해 창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교교육이 대학 적격자 선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교 단계에서의 창의 인재 육성이 대학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고교에서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의 질적 내실화를 통해 고교 교육과정 이력철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부 기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점수 중심의 획일적 선발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 2. 대학 교육과정의 과제

### 가. 창의·융합 인재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대학에서는 과목의 통합 및 연계를 통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각기 다른 전문영역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학생들의 특성과 필요 역량을 키우고 타문화 및 사회, 인문, 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융·복합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창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직무능력 표준 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의 교육과정이 창업지원과 같은 직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창조경영학'과 혹은 '창조경제학과'와 같은 융·복합 학과 개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나. 교육 중심의 교원능력 개발 및 평가

이들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융합 인재 양성이 이루어지고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수업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의 교육역량을

개발하고 교육역량 중심의 교원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강의뿐 아니라 실험·실습, 팀활동, 발표 및 토론 등 다양한 교육기법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체 대학 차원에서 Faculty Development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의 학습성과를 평가하여 창의적 문제해결과 자율적 학습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원의 교육역량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대학교육 산출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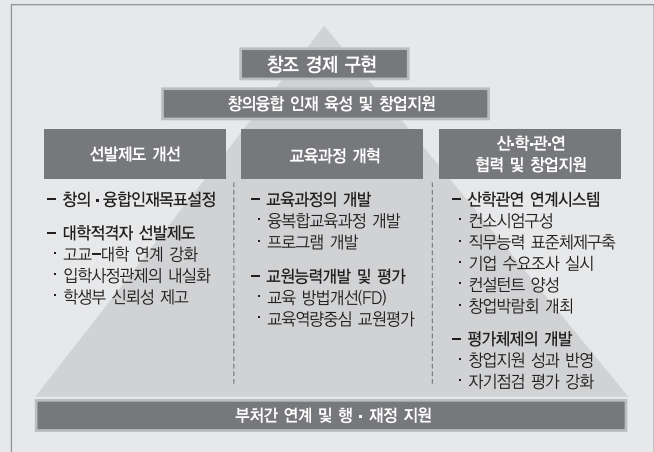
#### 가. 산·학·관·연의 연계 시스템 구축

산·학·관·연 협력을 통한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기업과 대학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부처 간 연계 및 행·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창업지원 기관의 설립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대학에서의 창업지원을 위해 각 대학 창업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산·학·관·연 협력을 통한 컨설턴트를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창업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나. 창의·융합 및 창업지원 중심의 평가체제 개발

그리고 이러한 대학의 노력들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학평가 항목에 창업지원 성과를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스스로의 자기점검 평가에 창의·융합 교육과정 개발, 산·학·관·연 연계 등의 성과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이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학생, 기업, 지역사회 모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창의적 융합 인재 육성과 창업지원을 위한 대학혁신방안을 종합해 보면, 부처 간 연계 및 행·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대학에서의 선발제도 개선, 교육과정 개혁, 산·학·관·연 협력 및 창업지원을 통해 창의 인재를 육성하

여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대학혁신 종합방안

#### 참고문헌

- 김동일 외(2009) 대학교수가 바라본 고등교육에서의 대학생 핵심역량: 서울대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0(2), pp. 195-214.
- 김미란 외(2010).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 연구(Ⅶ): 입학사정관제 성과분석 모델 개발 및 운영 보완방안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 배성우 외(2012). 과학기술 핵심인재 10만 양병을 위한 제언, 제 842호, 삼성경제연구소
- 오현석 외(2012). 융합학문 어떻게 탄생하는가. 교육문제연구 43집, 51-82.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유병규(2013). 창조경제 역량 평가와 활성화 방안. 창조경제 새로운 발전패러다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시균 편(2011). 첨단융합산업 인력수요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 임철일 외(2012). 공과대학 학생들의 창의성교육에 관한 인식. 공학교육연구 15(2), pp. 30-37.
- 정광희 외(2011).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연구(Ⅶ):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중장기 종합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 외(2011). 21세기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미래전략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인수 외(2012). 국내 대학의 창의성 교과목 현황 및 내용 분석: 상위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연구 30(2), pp. 179-199.
- 한국고용정보원(2012). 고용동향 브리프.
- 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연보.
- 한국노동연구원(2011). 학력별 노동시장 미스매치 분석과 교육제도 개선 과제.
- 한국행정연구원사회조사센터(2013).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 관한 전문가 조사.



#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역할



글

서거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전북대학교 총장

## I. 들어가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1982년 설립 이래 31년 동안 수많은 총장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자율성 신장을 위해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대학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대학총장들의 고견과 대학인들의 지혜를 결집하여 현명한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이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심체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모두가 실감하고 있는 것처럼 최근 한국 대학은 지금까지 경험하

지 못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학령인구 급감 현상과 대학 재정 위기, 글로벌 경쟁의 심화는 대학의 존립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대학의 책무성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우리 대학들은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대학들이 대교협을 중심으로 더욱 더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의 위기 상황에 대해 한국 대학들과 대교협은 그간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는지 겸허히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대학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은 무엇인가?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 높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글로벌 연구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발전을 선도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일, 바로 이것이 대학이 수행해야 할 기본이 아니겠는가. 대학의 위기 극복 첫걸음은 기본을 충실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대학,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학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II. 대학 발전을 위한 대교협의 역할과 방향

대교협이 대학의 발전을 견인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보완하고 다듬어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교협은 설립 초기의 초심으로 돌아가 회원 대학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오늘 우리 대학들이 처한 현실은 분명 위기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대학재정 확충 노력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교협이 2012년 12월에 발간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보고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고등교육 부문 공공 재원 평균 비율은 1.1%인데, 우리나라는 0.6%로 이탈리아, 일본과 함께 조사대상 28개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교육비는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73.4%에 불과하다.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

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등교육재정이 충분하고 안정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의존도는 국립 23.7%, 사립 51.1%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국립 48.5%(입학금·수업료 제외 시 45.0%), 사립 12.3%에 불과하여 등록금에 의존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세입구조가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특히 2010년 1월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등록금 인상이 어려워 고등교육기관의 세입구조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아울러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중 장학금 및 기타 가계 지원은 OECD 국가 평균이 10.4%인 반면 한국은 3.0%에 불과하고, 학자금 대출은 OECD 국가 평균 9.3%보다 높은 17.7%로 나타나 장학금은 적고 학자금 대출이 많은 상황이다.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자체 노력은 '명목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추가 확충'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나, 대학 예산 감소로 등록금 인하와 자체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 장학금은 목적, 유형, 명칭이 명료하지 않아 대학생 및 대학뿐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혼동을 주고 있다. 특히, 국가 장학금 II는 대학 단위로 지원하며, 대학 자체 노력에 따라 재학하는 학생들의 국가 장학금 수혜 여부가 결정됨으로써 개별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는 국가 장학금의 성격이 모호하다. 또한 단순히 학생의 경제적 수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미국 주정부의 경우와 같이 학생의 경제적 수준뿐 아니라 학생 소요



총액, 등록금 지불능력, 학생 필요경비 등을 통한 정밀한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을 2017년까지 GDP 대비 1%까지 높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대학이 끊임없이 지식을 창출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 재정의 확충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국가 장학금 제도도 보완하고 개선하여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되, 동시에 대학의 부담도 줄여 주는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대학 자체적으로도 발전기금 확충, 학교기업 육성, 기술이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 이를 학생들에게 환원한다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2. 대입전형제도 개선

수많은 고교생과 학부모들이 과도한 대학입학 경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복잡한 입시제도는 학교교육을 왜곡시키고 가계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한 명의 자녀를 졸업시킬 때까지 총 양육비로 3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이 가운데 사교육비 비중이 가장 크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이런 결과에 대해 대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인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사교육 문제는 대학입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학들이 교육과정의 범위나 수준을 벗어나 시험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교협은 대학들과 학교교육 활성화라는 공



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논술 문제 출제 시 고교 교사들이 참여하여 고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마다 우수한 신입생을 뽑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는 하지만, 3천여 개에 이르는 입시전형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고통 경감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꿈과 끼를 살리는 학교교육을 통해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대학들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학생을 선발하는 경쟁'에서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하도록 더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3.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 보완

대교협은 기관인증평가를 비롯하여 대학교육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과 산업계 관점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적 변화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하다보니 일부 부작용이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과 대학 구조조정 관련 평가를 진행하면서 정량적 지표에 근거한 포물러 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근거로 대학별로 재정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 및 성과 창출을 위한 경쟁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이는 대학의 국제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효과를 달성하는 측면이 있지만, 간접적 규제로 인한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대학들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대학평가 지표에 초점을 두고 평가지표 관련 항목 개선에만 집중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평가지표가 대학을 좌지우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학평가와 관련한 지표들은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대출 상환율, 등록금 부담 완화율, 법인지표, 입학관련 지표 등을 포함한 정책지표가 강조되고 있고,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단순 취업률의 강조는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평가 시 대학의 설립

목표나 유형, 소재 지역 등 개별 대학들의 특성이 반영된 평가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보완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학기관평가인증제를 더욱 정교화하여 대학이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자체적인 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 4. 대학 특성화와 대학 간 균형 발전

대학은 그동안 정권 및 정책의 교체에 따라 특성화 관련 사업비의 명목, 성격, 목적이 변화함으로써 대학발전계획을 일관성 있게 수립하지 못하고, 대학 특성화 및 관련 재정지원사업의 중복성과 상충성이 존재하여 대학 고유의 특성화를 장기적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동체적 이념과 국책사업 관련 교육·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립대학과 재단의 설립 이념 및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사립대학의 특성화 구별이 미흡하고, 지식생산과 우수 연구 성과를 창출해야 할 대학원 중심의 연구중심대학과 실용분야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교육(취업)중심대학의 구별 및 그에 따른 특성화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학은 특성화의 목표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특성화 체제 구축 기반 역시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대학은 대학대로 백화점식 학과 운영에 익숙해져 있고, 정부도 특성화를 얘기하면서 정작 특성화를 유도하고 지원하지 못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또한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역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대안과 지원이 부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학이 국가 경쟁력을 선도할 수 없다. 반드시 대학 특성화와 균형발전을 통해 대학 경쟁력도 높이고, 지역 대학도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본다. 특히 정부 주도형 대학 특성화와 대학 주도형 대학 특성화를 구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형 대학 특성화는 국가적 요구와 책무를 위한 소외 학문 육성, 기초학문 육성으로 특성화하고, 대학 주도형 대학 특성화는 대학별 설립 미션과 장기계획, 지역산업 등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체적으로 특성화하도록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오래 전부터 논의는 되어 왔지만,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지 않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역할 분담, 연구중심대학(academic university)과 교육(직업)중심대학(vocational university)의 구분에 따른 특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지역 및 대학 특성에 맞는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대학의 강점 분야에 맞춤형 재정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 대학 특성화를 연계하여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공계 위주의 정부 대학평가 및 지원사업에서 인문사회계열 특성화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하고, 대학평가 시 특성화 구분에 따른 평가기준을 분리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나가며

현재 한국 대학들과 대교협 앞에는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하다. 이를 지혜롭게 풀어내기 위해 대교협은 대학총장을 포함한 대학인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결집하여 대학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도 소통체계를 갖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립과 사립, 수도권과 지역 대학, 규모가 큰 대학과 작은 대학, 특수목적대학과 일반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한국 대학들은 설립 배경이나 처한 현실,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 하지만 협주곡이 아름다운 이유는 여러 악기가 각자의 독특한 음색을 가지면서도 조화를 이루려 노력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차이를 인정하되, 그 속에서 공동의 선을 모색한다면 한국 대학들이 가야할 곳도 분명해질 것이다. ㄸ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 추진과 전망

글

강은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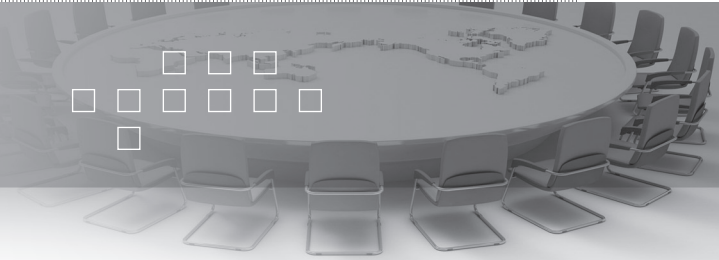
국회의원,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I. 서(序)

### - 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인가?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은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그리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이 세 가지의

큰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새 정부 교육정책의 최종 목표이다. 이에 학교교육 정상화의 첫 번째 추진과제로 공교육체제 내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4월 30일 발의했다.



지나친 선행학습으로 학부모는 사교육비의 과도한 부담으로, 학생은 과도한 선행학습 부담으로, 그리고 교사는 비정상적인 교실수업 부담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현장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및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의하면 초·중·고등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69.4%이고, 총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해 발표한 선행학습 사교육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생 60.2%, 중학생 55.9%, 고등학생 47.4% 이상이 1개월 이상의 선행학습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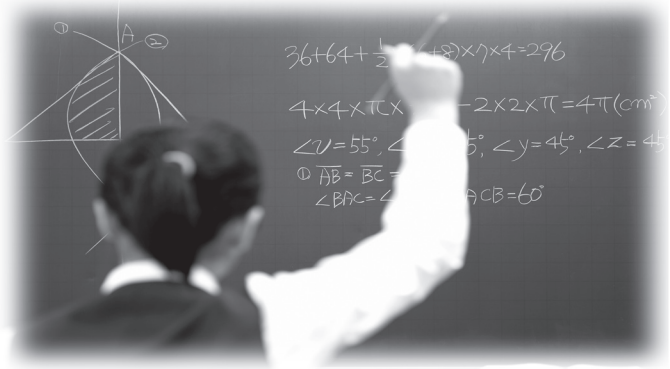
사교육 중에서 특히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외에도 학생들이 미리 학교 밖에서 교과내용을 배워 와서 학교의 수업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등 학교교육 본래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 선행학습에 관해 최근 한국 뇌연구원이 '선행교육·교습과 뇌손상'에 관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교육이 뇌 발달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스트레스 유발과 뇌 발달 저해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선행교육·교습이 아닌 뇌 발달에 따른 적기 적량 교육'으로 학생교육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학교교육에서의 성실한 배움과 이수, 그리고 그 내신 기록의 활용으로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 등이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수업 실시, 배운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대입 전형의 논술·적성·구술시험 등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출제 등으로 사교육 시장에서 선행학습이 조장되고 있다. 따

라서 학생들의 건강과 두뇌발달 등을 고려한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에 대해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이와 동시에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고자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 II.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공정한 학생평가에 대한 지도·감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며, 학교의 장은 학생이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선행교육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행학습 예방 목적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선행학습의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생의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학교 이전 단계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실시하고, 동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다음년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로 적성검사, 구술시험, 논술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출제 및 평가를 못하도록 하고,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립학교 및 대학의 선행교육에 대한 심의·조사 등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권한, 위원 구성 및 임기 등을 정하도록 하며, 학교의 선행교육에 대한 심의·조사 등을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권한 및 위원 구성 등을 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선행교육 금지, 학교의 입학전형 및 대학 입학전형 관련 규정 위반 시 교육

관련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 시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 관련 기관은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 법의 적용 제외 분야와 교육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Ⅲ. 특별법안 주요 내용 풀이

#### 1. 선행교육의 개념은 무엇이며, 선행교육을 금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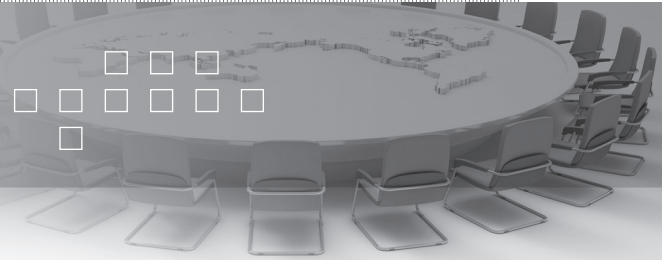
‘선행교육’이란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가 교육과정) 및 교육감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시·도 교육과정)과 단위학교 교육과정(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즉,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한다는 것은 학교는 국가 및 시·도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그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수업을 실시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 2. 현실적으로 선행교육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능한가?

그 간 학교 내외에서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선행학습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의 폐해 및 규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동 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 내에서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여 학







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자 제정하는 것이다.

동 법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선행교육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시·도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 등을 통하여 선행교육의 범위 등에 대한 타당성·객관성 있는 판단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3. 동 법이 적용되는 ‘교육 관련 기관’은 어떤 기관인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 4. ‘선행학습 영향평가제’는 무엇인가?

학교 및 대학이 학교 입시 및 대학별 고사 등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입학전

형에 반영하여 각종 입학시험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줄이도록 하는 제도이다. 학교 및 대학은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년도 입학전형에의 반영계획을 학교의 경우는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교육감에 제출하고, 대학의 경우는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위 사항들을 위반 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 관련 교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요구,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5. ‘선행교육 금지’, ‘선행학습 유발 평가나 출제 금지’ 외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교원의 상담활동 및 학생 및 학부모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공정한 학생평가에 대한 지도·감독,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선행교육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선행학습 예방 목적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선행학습의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생의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이 가능하다. 학생 및 학부모는 학교 수업 및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학교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6. 학원 등 사교육기관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교육 경감 효과에 대한 실효성에 논란이 있지 않은가?

동 법은 학교 내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학원 등 사교육기관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으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교 시험 및 입시전형을 개선함으로써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는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각종 불법·편법 행위는 적극 제재하는 동시에, 학원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 및 입법 취지를 인식하고 건전한 교육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필요 시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사회적 여론수렴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 7. 동 법 위반 시 제재방안은 무엇인가?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 관련 기관에서 선행교육 금지, 학교 및 대학의 입학전형 등 관련 규정 위반 시,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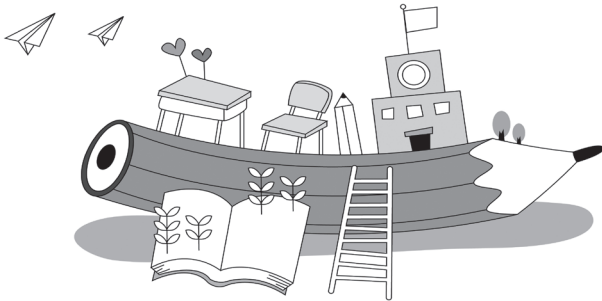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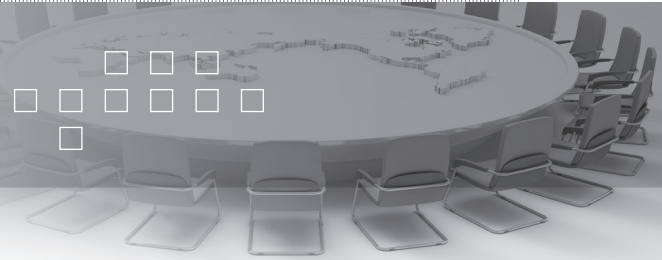
운영심의위원회(시·도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교육 관련 기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교원에 대한 징계를 하거나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할 수 있고, 대학의 경우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8.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대학의 장은 대학별 고사로 적성검사, 구술시험, 논술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안 되고 규정하였다. 또한,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며, 당해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위 사항들을 위반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 관련 교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요구,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9.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과의 주요 차이는 무엇인가?

동 법과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경감을 줄인다는 기본 취지는 동일하나, 그 세부 내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주요 차이가 있다.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첫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그리고 학습지 관련 기관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고, 둘째, 학원 등에서 공통교육과정 적용 대상인 고등학교 입학 이전 학생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교육에 대한 광고·선전을 금지하고 있다.(단, 미취학 아동 및 국가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과목을 학습하려는 초·중학생에 대한 선행교육은 시수 제한) 셋째, 학원 등이 선행교육 금지 의무 등을 위반 시 등록 말소 및 교습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소속으로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직권 또는 시정요구를 받아 교육 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 학교 수업을 교육과정 범위 내로 국한하는 것은 능력 있는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박탈하여 심화학습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동 법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능력 있는 학생들의 심화학습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심화학습은 자기주도적으

로 고차원적·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습과정으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가능하며, 선행교육은 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사 및 강사 주도로 속진형 암기식·주입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심화학습과 차이가 있다.

학교에서는 수준별 수업 운영,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및 방법 개발 등을 통하여 학생 맞춤형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학교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학교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한 수업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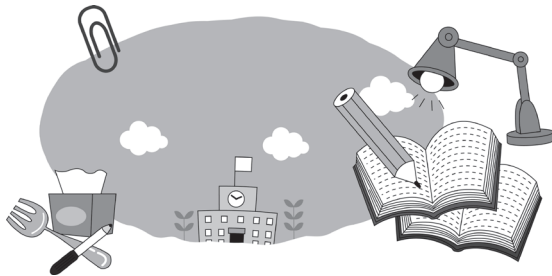
**11. 고3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능에 대비한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수능을 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교육과정 편성·운영상 필요한 조치 등 학교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12. EBS 수능 연계 정책으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EBS 수능 연계는 수험생들의 학업 부담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EBS 교재는 이러한 목적 하에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구성하고,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수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단, 학교현장에서는 EBS 교재가 학교 수업의 보충자료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EBS 교재





는 보충수업이나 방과후학교 등에서 보조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3. 논술시험 등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는 동 법에서 교육과정의 범위 및 수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능의 경우는 어떠한가? 또한, 수능 등을 교과서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수능 출제의 기본방향도 동 법의 취지와 동일하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비추어 출제하는 것이다. 또한, 수능 등을 교과서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는 것은 ‘교과서의 개념 및 원리’를 중시하여 출제한다는 것이며, 교과서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은 아니다.

**IV.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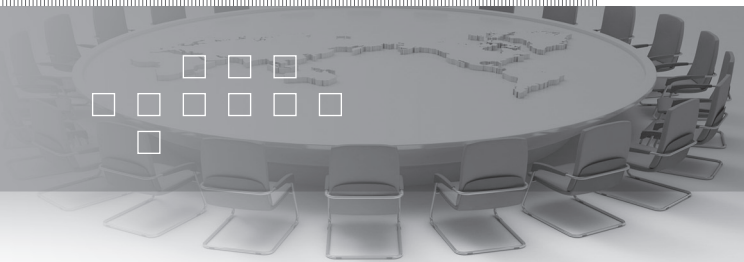
박근혜 정부는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교육정책의 핵심과

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인성교육, 수업개선 및 진로교육 강화,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 여건과 문화를 개선하고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비전으로 한 박근혜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프로젝트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 발의로 첫 시동을 걸었다. 그 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행교육이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 시장에서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의 제정으로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을 통해, 대학별 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평가하고 창의·인성·잠재력을 중시하는 전형을 실시하며, 중·고교는 정상적 교육 본래의 역할과 제도, 기능이 회복·복원되도록 하고, 학원 등은 학습기회의 결손이나 부족 내용을 보충·심화하는데 지원 역할을 하는 새로운 선순환 교육 패러다임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어, 2014년부터 관련 정책들이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야당과도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후속 조치들도 정부와 함께 차근차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과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시행령(안)

시행령(안)에 규정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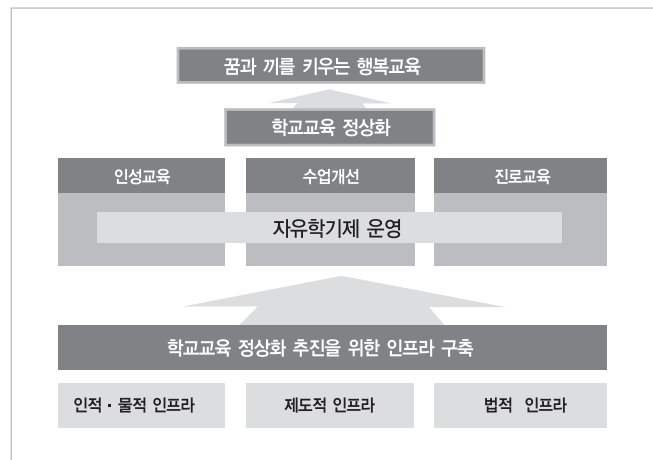
- ▶ 특별법(안) 제8조(선행교육 금지)는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 특별법(안)에서 제시한 지필평가(중간, 기말고사 등), 수행평가 외에 학교 입학전형으로 치러지는 선발고사, 반 배치 등을 위한 배치고사 및 재학 중에 시·도 또는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모의고사 등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 출제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 특별법(안)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는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서 전기 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88조의 2 제1항에서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규정하고 있음을 준용하

여, 시행령에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및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또한,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의 2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입학전형 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심사 항목 등을 분석하여 특별법(안)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 기타 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이의신청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이 시행령에 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체계도 ]





산과 들이 칠판이고 책상 ...서울에서 전학생 몰려  
- 시골학교의 기적

## 춘천 금병초등학교

글  
·  
김연주  
조선일보 기자



“면은초 기억나지? 폐교될 뻔 하다가 교장 덕분에 살아난 곳. 그 교장이 다른 학교에 갔는데, 거기도 또 살렸대.”

지난 4월 한 취재원의 전화를 받고 귀가 번뜩 뜨였다. 면은초는 강원도 평창에 있는 시골학교인데, 한때 폐교위기까지 갔다가 학교장의 힘으로 전국에서 학생들이 전학 오는 곳으로 바뀐 곳이었다. 당시 ‘시골학교의 기적’으로 불리며 조선일보 사회면을 장식하기도 했다. 당장 당시 교장이 누군지, 어디로 부임했는지 수소문했다. 당시 면은초 교장은 현재 춘천의 ‘금병초’에



있었다. 금병초의 이야기는 놀라웠다. 10년 전만 해도 학생 수가 510명에 달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2009년에는 학생이 달랑 50명 남았다.

그런 학교가 2010년부터 되살아나기 시작해 올해는 학생 157명이 다닌다. 이 중 학교가 위치한 신동면에 사는 학생은 30명뿐. 나머지는 서울 등 수도권, 춘천 시내 등 외지에서 전학 온 학생들이다. 비결이 뭘까.



## 김유정문학촌 · 금병산이 운동장

금병초를 살려낸 주인공은 3년 전 부임한 서대식(59) 교장이었다. 올해로 교육경력 39년차인 서 교장은 금병초 이전에 다른 학교를 살린 성공스토리를 갖고 있다. 바로 강원도 평창의 면온초등학교다. 시골의 면온초는 2003년 전교생이 21명에 불과했다. 학교를 폐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던 2006년 서 교장이 부임했다.

서 교장은 학교를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방과후 수업을 개설했다. “누구나 좋은 교육을 하는 학교에 보내고 싶어하니 다른 학교와 차별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학생을 끌어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서 교장은 당장 골프 · 스노보드 · 스키 · 수영 · 태권도 · 글짓기 · 영어회화 · 중국어 회화 · 사물놀이 등 25개나 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학생들에게 이 중 5~7개의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도록 했다. ‘벽지학교에서 어떻게 강사진을 확보할까’ 싶었지만, 서 교장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라봤다. 면온초 근처엔 골프장과 스키장, 리조트가 있었고, 이효석 기념관에는 작품을 쓰러 오는 시인과 소설가들도 많았다. 멀지 않은 횡성 민족사관고등학교에는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악기를 잘 다루는 학생들이 있었다. 군부대

에는 태권도 유단자와 대학생인 장병들이 많았다. 서 교장은 이 ‘지역 자원’을 이용해 방과후 학교를 운영했고, 학생들은 사립초등학교 못지 않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서 교장은 면온초에서의 성공경험을 금병초에서도 활용했다. 그는 이번에도 지역 특색을 활용한 체험 교육으로 학교를 탈바꿈해 봤다. “아이들이 어릴 땐 무엇이든 궁금해 합니다. 맨날 엄마한테 ‘이건 왜 이럴까?’ ‘저건 뭐야?’하고 묻잖아요. 근데 초등학교에만 들어오면 호기심이 짝 사라져요. 왜 그렇까요? 책상 앞에만 앉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손발로 직접 해보면서 자기가 끌리는 걸 찾아야 해요. ‘마음이 떨리는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죠. 마음이 떨려야 호기심이 더 생기고 꿈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학교가 혼자 그런 기회를 다 해줄 수가 없으니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거지요. (서대식 교장)“금병초는 지역 자산이 무궁무진하다. 금병초가 있는 신동면은 소설 ‘동백꽃’으로 유명한 작가 김유정의 고향이다. 학교 운동장에서 고개를 뺨뺨히 내밀면 김유정 문학촌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

서 교장은 김유정 문학촌에 유명한 문인들이 오면 “우리 아이들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고, 문학제가 열리면 아이들이



가서 '풍물 공연'을 했다. '김유정 닳기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아이들에게 김유정을 닳으라고 하는 것은 꼭 김유정처럼 문학을 하라는, 그런 협소한 의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을 쓴 김유정의 ‘감수성’을 닳아가자는 뜻이죠. 이렇게 지역의 인물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자기 학교와 지역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는 계기도 됩니다.”

## 모내기 하며 크는 아이들

금병초의 특징 중 하나가 '생태교육'이다. 마침 기자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점심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었다. 아이들이 한 무리 달려가길래 따라가 보았다. 아이들은 학교 운동장 바로 아래쪽에 펼쳐진 논·밭으로 내려갔다.

6학년 아이 10여 명이 담임교사와 함께 비닐하우스에서 취나물을 뜯으며 소란을 피웠다. 한 아이는 취나물에 코를 대고 별름거렸고, 다른 아이는 한 손 가득 나물을 들고 “나 엄청 많이 땀다.”고 자랑했다.



아이들은 바구니에 나물을 한 가득 담아서 곧바로 학교 급식실로 달려갔다. 이날 급식 메뉴는 잡곡밥, 시금치국, 취나물쌈, 깍두기, 그리고 돼지고기 볶음. 금방 밭에서 딴 취나물을 학교 급식실에서 교장, 교사, 아이들이 모두 나눠 먹는 풍경이 신기했다. 6학년 김남선(13)군은 “어제 딴 시금치로 만든 국이랑, 취나물이 정말 맛있다”고 했다. 금병초 아이들은 학교 옆 논밭에서 취나물뿐 아니라 쌀·보리·아욱·근대 등 다양한 작물들을 직접 길러 먹는다.

논·밭은 동네에 사는 동문이 무료로 장기 임대해줬다. 서대식 교장의 학교를 살리려는 노력에 마을 사람들과 동문들 모두 감동을 한 것이다. 넓은 논·밭을 아이들이 다 돌볼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엔 이장을 비롯해 동문들과 마을 어른들이 농사를 도와준다. 마을 어른 중 한 아주머니가 “우리 아이들이 농사를 참 잘 짓는다.”고 자랑을 했다. “첫해엔 아이들에게 눈에 들어와 모내기를 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진흙탕에 들어 가느냐’ ‘별래에 물릴지 모른다’고 기겁을 하면서 안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 해보고 나니까 확 달라졌어. 이제는 시키지도 않아도 바지를 탁 걷어 부치고 눈에 들어와서 벼를 심는다니까. 뭐든 해봐야 알아.”

금병초 뒤편에 있는 '금병산'도 아이들의 교육현장이다. 금병산은 산기슭이 비단 병풍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금병산에 올라 숲 체험을 한다. 선생님과 함께 걸으면서 야생화도 보고, 쓰레기도 줍는다.

서 교장은 “초등학교 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보다는, 곤충 하나 더 아는 게 훨씬 더 창의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금병초는 또 삼포유원지, 춘천교대, 강원애니메이션고, 강원도예총 등 다양한 지역 기관과 협의해 방과 후 수업(18개)이나 동아리 활동(3개)을 지원받는다.

## 학원이 싫어서 온 아이들

금병초에는 다른 학부모처럼 학원을 서너 군데씩 보내다가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에 온 학부모들이 많다.

2년 전 춘천 시내 학교를 다니던 막내(현재 초3)를 금병초로 전학시킨 학부모 이광순(43)씨도 그런 경우다. “애가 하고 싶은 게 많고 저도 시키고 싶은 건 많은데 학교에서는 공부만 가르치고 다른 걸 못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면 학원을 여러개 보냈죠. 금병초 얘기를 듣고 한번 보내 보자 결심했어요. 여기 와서 텃밭도 가꾸고 다양한 체험을 하니까 학원 갈 필요가 없어요. 아이도 학교 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학부모들은 “모든 학생들이 다 이 학교에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학생들을 가만히 책상에 앉혀놓기보다 활동을 많이 시키는 교육을 하다 보니 주위가 다소 산만해진 학생들도 있다. 이럴 때 학부모가 전학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꾸준히 금병초에 학생이 몰리는 것은 서 교장의 교육 철학 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금병초 졸업생 학부모는 “금병초는 다른 학교보다 공부를 덜 시키지만 중학교에 갔는데 공부를 잘 하고 있다.”며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초등학교 때만은 공부보다는 산천을 뛰어 놀면서 자연과 가깝게 지내게 하고 싶었다.”며 “금병초에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아이가 교과점수는 다른 학교 아이들보다 낮을지 몰라도 자기만의 생각을 갖게 되고 남을 배려하는 힘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







중간고사 대신 진로탐색...“꿈을 디자인해요”

# 서울 연희중학교

글  
·  
김수현  
국민일보 기자



“얘들아, 너희는 디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인생이요.” “삶의 모든 것이요.” “장난감이요.”

지난 5월 2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15층 디자인경영 센터 대회의실. ‘디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박수진 삼성전자 디자인센터 책임의 말에 여기저기서 뜻밖의 대답이 튀어나왔다. ‘갤럭시 S’시리즈, 보르도TV 등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제품들의 디자인을 탄생시킨 디자인경영센터에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외부인이 들어온 건 센터가 생긴 이후 처음이었다. 이날 중간고사를 보는 대신 삼성전자로 직업체험활동에 나선 서울 연희중학교 1학년 학생 33명은 난생 처음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에 대한 PPT를 보며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다.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에 꼭 와보고 싶어 신

청했다.”는 김량현(13) 군은 “자유롭게 바닥에 둘러앉아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을 토론하는 PPT속 MIT 미디어랩의 모습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고 말했다.

친형을 따라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라는 이유빈(13) 군은 “한식과 양식이 결합돼 퓨전음식이 되는 사진을 보며 디자인과 IT 기술이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니 너무 재미있다.”며 “앞으로 패션 디자인에도 IT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 중간고사 대신 직업체험 ...“나도 삼성전자 취직하고 싶어”

이제 19층 디자인정보자료실에 도착한 학생들은 탁 트인 전망 속 디자인에 관한 각종 책들과 DVD로 가득한 공간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디자인정보자료실 백진경 사서는 “이곳은 늘 새로운 디자인을 고민하는 디자이너들을 위해 설계된 맞춤 도서관”이라며 “디자이너들의 자유롭고 창의로운 생각을 돕기 위해 바깥을 시원하게 내다볼 수 있는 큰 창과 숲 속에서 가져온 듯한 큰 나무도 갖다 놓았다.”고 설명했다.

테이블에 놓여 있던 영문 디자인 서적을 들춰보던 이재현(13) 군은 “사무실하면 딱딱한 책상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카페 같은 곳에서 여유롭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몰랐다.”며 “평소에 휴대폰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많은데 나중에 삼성전자에 꼭 취직하고 싶다.”고 말했다.

학생들과 함께 직업체험에 참여한 김용구 연희중 교사는 “중간고사 대신 직업체험을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학부모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렇게 현장에 나와 보는 것이 장차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며 “평소에 까불기만 했던 학생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놀랍기도 하다.”고 웃음을 지었다. 이날 하루 중일 학생들에게 회사 곳곳을 견학시키며 학생들의 ‘꿈 멘토’로 나선 삼성전자 홍보팀 석원기(33) 씨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해봤을 것.”이라며 “꿈 멘토 역할을 하다보니 나 자신이 중학교 1학년 때 가졌던 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배우·바리스타·경찰 되고 싶어요”... 연희중 310명 66곳에서 진로·직업 체험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연구학교로 선정된 연희중은 이날 1학년 310명이 참가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의 기적’ 행사를 서울 66곳에서 진행했다. 연구학교로 선정된 서울지역 11개 중학교의 1학년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50일 간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각종 직업을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한다. 학생들은 이날 3~10명 단위로 그룹을 이뤄 박물관, 동물병원, 카페, 은행, 장애인 재활센터, 약국 등 다양한 일터를 체험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장래희망 1위로 꼽히는 ‘연예인’ 지망 학생 10명은 서울 여의도동 탑스타 연기학원을 찾았다. 학생들



은 발성 연습과 대본 읽기를 처음해 보는 탓에 처음에는 쑥스러워 하며 나서기 꺼렸지만, 점차 흥미를 붙이면서 멘토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다.

바리스타를 체험해 보려고 서울 북가좌동의 커피 전문점을 찾은 학생들은 원두가 커피로 재탄생되는 과정을 배우고 자신이 마시고 싶은 커피를 만들어봤다. 5명의 학생은 바리스타 멘토 주변에 모여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뒤 직접 커피와 우유 등을 섞어 카페라테나 캐러멜 마끼아또를 만들었다. 어떤 커피를 가장 좋아하는지, 어떤 커피가 가장 잘 팔리는지 등 소소한 질문부터 바리스타가 되려면 어떤 학과를 가는 것이 좋고 필요한 자격증은 무엇인지 등 질문이 이어졌다.

서대문경찰서 남가좌파출소를 찾은 5명의 학생은 가스총과 수갑 등 경찰 장비 사용법을 배웠고 직접 수갑을 차보기도 했다. 학생들은 '남가좌동에 버려진 오토바이가 있다'는 가상의 상황으로 신고를 받은 뒤 순찰차 모니터에 현장과견 지령이 떨어지는 과정을 지켜봤다. 장래희망이 경찰이라는 황문경 양은 "직접 무전도 해보고 순찰차를 타고 지역을 돌아보니 매우 신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삼성전자 디자인경영센터에서 열린 직업체험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문용린 교육감은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꿈이 생기고 영글어가길 바란다."며 "단순히 체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피드백을 통해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심화·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지역 11개 연구학교 선정...진로교육 프로그램 확충·형평성 확보 등은 과제

서울시교육청이 문용린 교육감의 핵심정책인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연구학교의 운영결과를 분석·평가해 내년부터 일반화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이 선정한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연구학교는 동대문구 송인중, 양천구 신서중, 서대문구 연희중, 강남구 세곡중, 영등포구 당산중, 동작구 사당중, 노원구 신상중, 성동구 마장중, 용산구 한강중, 성북구 북악중, 강동구 강일중 등 11개교다. 연구학교는 지난 2011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23개교가 참여했던 '청진기'(청소년 진로직업체험의 기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직업체험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일-배움-미래설계가 연계된 '청진기'는 사전교육-체험-사후교육-상담으로 이어지는 4단계 프로그램으로, 서울시교육청이 독창적으로 개발한 우리나라 최초의 중학생 직업체험 과정이다.

연구학교는 이와 함께 '진로와 직업' 과목을 중학교 1학년에 편성해 연 34시간 이상을 운영할 예정이다. 진로 관련 수업 시에는 체험·활동 중심으로 운영해야 하며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진로설계 수업을 해야 한다. 교사들은 일반 교과와 내용 속에 포함돼 있는 진로교육적 요소를 부



각해 교과목의 목표와 진로교육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연계해 교육하고 수행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중간고사(지필평가)는 시행하지 않으며 학기 중 수행평가와 기말고사(지필평가)를 합산해 성적을 산출한다. 기말고사는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학습요소’만 평가하는 방향으로 출제하고 단원을 수행평가, 지필평가로 분류해 시험범위를 축소하게 된다.


수행평가는 학기말 성적의 50% 이상, 과목별 학기말 성적의 10~15% 정도를 진로탐색 관련 수행평가로 실시하며 단계적으로 비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토론, 협동학습, 체험 등 과정 중심 수행평가를 실시하며 직장체험 과정 관찰, 멘토에게 편지쓰기, 포트폴리오 등 진로직업체험 활동에 대한 교과통합적인 수행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가 가진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진로·체험 위주 교육이 한 학기만으로 끝나고 나머지 학기에 일절 중단되면 성장과정에서 따라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과정이 단절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

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말고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입학한 중학생부터 중1 내신 성적이 고교 입시 내신에 반영되는 만큼, 고교 입시 내신 산출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중1 자녀를 두고 있는 한 학부모는 “아이가 중간고사를 보지 않아 좋아하긴 하지만 그에 따라 기말고사 출제범위가 넓어져 학습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가 선행학습 혹은 사교육 학기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더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규과목에 '인성교육' 편성 실험

# 인천 송도고등학교

글  
·  
김도형  
동아일보 기자



'사람이 먼저 되라' 지난 4월 22일 찾아간 인천 연수구 송도 고에는 입구에는 비석이 하나 서 있었다. 올해로 개교 107년을 맞는 학교의 교훈이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볼 수 있었다. 머리카락이 대체로 아주 짧았다. '옛날 학교'의 '옛날 학생' 같다는 느낌이였다. 올해부터 학교의 정규 시간표에 인성교육 시간을 집어넣고 교육을 하기로 했다는 학교의 모습을 살펴보러 간 길이었다. 송도고 1학년 전교생은 올해부터 매주 화~금요일 5교시에 인성교육 수업을 듣고 있다. 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인성교육을 넣어 가르치는 일은 드물다.

## ‘수업’ → ‘토론’ → ‘정리’

이날 오후 1학년 7반 교실에서는 토론이 한창이었다. 주제는 ‘낙태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1주일 단위로 진행되는 송도고 인성교육에는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과정. 송도고는 매주 한 가지 주제를 익히면서 화요일에는 먼저 학교에서 마련한 동영상과 함께 본다. 동영상은 국내 방송사들이 방영한 내용들 가운데 해당 주제에 적합한 내용들로 마련했다.

이어 수요일, 목요일에는 동영상 내용을 놓고 이날처럼 학생들끼리 토론을 벌인다.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동영상과 토론 내용,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한다.

이날 토론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찬성과 반대로 나뉘서 자리도 새롭게 배치한 학생들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는 행복하게 자라기 힘들다’는 이유로 낙태의 필요성을 역설하거나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태아라고 부르기 힘든 상태의 생명체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로를 설득했다.

물론 쉽게 결론날 수 없는 주제. 40분 가까이 토론했지만 학생들은 계속 새로운 이유를 들며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신승호 군(16)은 “사실 평소에는 이런 문제를 생각할 이유도 시간도 없다. 이런 상황이 주어지니까 생각도 정리해보고 생명존중이나 학교폭력 문제 등을 고민해보게 된다.”고 말했다.

수업을 이끈 한인수 교사는 “인성교육의 영역이 넓기 때문에 오늘 같은 주제나 안락사 등에 대해서도 토론을 한다.”며 “상당한 지적 능력을 갖춘 고등학생은 윤리적인 주제나 사회적인 주제 등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게 하는 것이 좋은 교육방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실천 기록 남기며 스스로 점검

이날의 토론은 시각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 수업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송도고의 인성교육은 동영상 수업과 토론에 그치지 않는다. 교사는 학생이 토론하고 글 쓰는데 이어 스스로 느낀 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챙기기 때문이다.

학교가 제작한 별도 책자에서 스스로의 행동을 점검하도록 하고 월요일에는 담임교사가 하나하나 확인한다. 배운 내용을 작은 실천으로라도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 학생들도 공감한다. 최근 심각한 학교폭력 등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이런 과정에서 길러진다.

“신체적 폭행은 시간이 지나면 아픔이 가시지만 언어폭력은 피해자 가슴에 비수가 꽂히듯 큰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오래 간다.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욕하며 ‘장난인데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앞으로는 욕을 하지 않고 학교폭력 문제에서도 약자를 위해 노력해야겠다.”

1학년 조준영 군(16)의 글이다. 별도의 학교폭력 교육을 받으며 써낸 글이 아니다. 학교 인성교육 수업에서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배우면서 느낀 점을 적었다.







다른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를 놓고 고민한 흔적도 살펴볼 수 있었다. 3주째 주제(더불어 사는 사회의 조건)를 공부한 박정현 군(16)은 “중학교 2학년 초에 친구가 사소한 시비로 폭행을 당했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나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다.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든 먼저 나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썼다.

김승현 군(16)도 6주째 주제였던 ‘인사와 언어 순화’와 관련해 이렇게 다짐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에 예절을 지켜야만 한다는 점을 배웠다. 아는 어른과 마주치면 인사를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까지 먼저 인사하지는 못했다. 다음부터는 고쳐야겠다.”

## 모호한 인성교육의 틀을 새로 마련

최근 학교폭력 문제로 인성교육을 유난히 강조하지만 예체능 활동이나 캠페인, 캠프 같은 일회성 행사를 빼면 실질적인 인성교육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송도고에서 인성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했을 때 부딪힌 문제도 같았다.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커녕 무엇이 인성교육인지 정확한 정의조차 내리기 힘들었다.

결국 송도고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김연호 교사(53)를 비롯한 교사 5명이 매달려 25주 동안의 교육계획을 새롭게 만들었다. 도덕과 윤리 측면에서의 인성, 민주시민의 자질 측면에서의 인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필요한 교양 등 3개 영역을 중심에 놓았다. 미국의 한 윤리교육 전문단체가 인성교육의 구성요인으로 △신뢰 △존경 △책임감 △공정성 △배려 △민주시민의식 등의 6가지를 설정한 것을 참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직 생명존중 예절 경로효친을 윤리·도덕 영역에, 준법정신 질서의식 정의감 평등의식을 민주시민의 자



질 영역에 포함했다. 봉사정신과 협동정신 애국심 존중 배려 책임감을 공동체 구성원의 교양으로 넣었다.

이를 바탕으로 △예절 △준법의식 △환경보호의식 △학교폭력 예방 I·II △질서의식 △봉사의식 △생명존중 I·II △절제 △인터넷 중독 예방 등의 영역에서 25개 주제가 만들어졌다. 김 교사는 “아예 새로운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일이라 쉽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동영상 수준을 선택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생소한 인성교육이지만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48.7%의 학생이 ‘인성교육에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이 13.5%인 것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유재천 군(15)은 “학교폭력이나 금연 등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 안의 얘기보다 생생해서 재미있었고 스스로의 행동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한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 ‘인성교육 인증제’로 대입에도 활용

대학 진학에 가장 신경 써야 할 고등학교가 인성교육에 시간을 들인다는 시선을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송도고가 1

년 과정을 '인성교육 인증제'로 운영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학입 시에서 제시할 만한 비교과활동 중 하나로 만든 셈이다.

지금의 1학년 학생이 2학년이 되면 송도국제도시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이해'를 주제로 수업을 한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 즉 △정치 △경제 △환경 △국제분쟁 △식량문제 등의 내용들을 1학년때처럼 교육시킨다는 계획이다. 인성교육의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

새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은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인성교육을 받는다. 3학년 때는 2년 동안 진행한 인성교육 토론수업을 면접과 논술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인성교육의 틀을 짠 사람은 건국대 교육공학과 교수와 교육대학원장을 지낸 오성삼 교장이다. 오 교장은 지난해 9월 정년퇴임하면서 인천 송도고로 부임했다.


이날 학교에서 만난 오 교장은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그동안 계속 있었지만 실제로는 가장 뒷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된 적이 없는 데다 입시교육에 밀렸다는 것.

“인성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는 “미국은 학교에서 시민의식을 공통으로 가르친다. 기본적 윤

리의식이나 전통적 충효사상과 더불어 공동체와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은 반드시 학교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옛날부터 당연히 학교에서 했어야 하는 일을 이제야 시작했다는 얘기였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인성교육을 막연하게 강조하는 데서 벗어나 정규 수업시간까지 활용하는 적극적인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호응하고 있다.

김경근 고려대 교수(교육학과)는 “최근 명문대 입학생마저 인성 면에서나 사회성 면에서 기본적 자질이 부족한 때가 많다.”며 “초·중·고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성을 기르는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도고의 '인성교육 인증제'는 최근에 진행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의 제1회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공모전 최종 심사에서 23개의 공식 인증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으면서 전국에 보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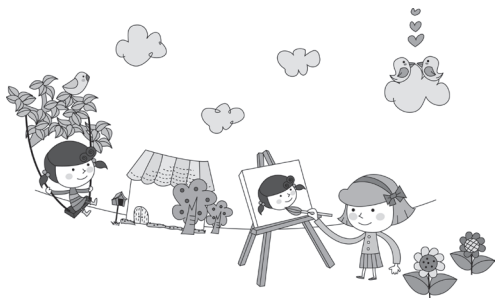




여대생들의 특별한 합숙...“타인과 사는 법 깨달았죠”

# 서울여자대학교 53년 전통 기숙사교육

클  
·  
이한길  
중앙일보 기자



## 1학년 1학기 때 3주 동안 바롬인성교육 받아

올해 서울여대에 입학한 연지현(19)씨와 이지은(19)씨는 학기 초인 지난 3월 말부터 3주간 기숙사 생활을 했다. 원래 지현씨의 집은 서울이고 포항이 고향인 지은씨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지만 이 기간만큼은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했



다. 두 사람과 함께 기숙사 608호에 딸린 방 4개를 나눠 쓰는 다른 13명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엔 진짜 어색했죠. 다들 전공도 제각각이고 고향도 다르잖아요. 괜히 휴대전화를 쳐다보고 평소엔 안 하던 공부를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기숙사 입소 첫날, 608호에 들어온 15명의 학생 사이엔 침묵이 감돌았다. 처음 본 사이다보니 같은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도 꺼렸다. 청소와 정리는 스스로 해야 했다. 초·중·고 내내 대부분 혼자 방을 쓰고 청소와 빨래는 엄마에게 맡겼던 학생들에겐 생소한 일이었다. 지은씨 역시 “대학에 오기 전까진 혼자 방을 썼고 청소도 거의 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들어온 지 셋째 날이 되자 화장실 휴지통이 꽉 찼다. 아무도 치울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날 밤 608호 학생들은 회의를 열어 세 가지 생활규칙을 정했다. 첫째는 거실과 화장실 청소는 함께 하기, 둘째는 샤워한 뒤 빠진 머리카락은 직접 치우기, 셋째는 분리수거 잘하기였다. 3주 간의 합숙을 마친 지현씨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법을 조금은 배운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기숙사 생활을 한 건 서울여대 신입생은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바름인성교육’을 받기 위해서다. 바름은 ‘바르다’의 순우리말이다. 서울여대 신입생이라면 1학년 1학기 때 3주 동안 바름인성교육관에서 합숙생활을 해야 한다. 올해도 1학기 동안 신입생 1,800여 명이 네 번에 걸쳐 교육을 받고 있다.

## 합숙·강의 통해 꿈 찾고, 인성 기르며, 대학생활 배워

3주 동안 그냥 합숙만 하는 건 아니다. 정규수업이 끝난 오후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인성 등에 대한 수업을 듣는다. 강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인생 그래프 그리기 등을 통해 꿈을 찾고, 예절 등 인성을 배우며, 선배들로부터 대학생활에 대해 조언을 듣는다. 합숙기간 동안 생활지도교사 9명과 30여 명의 강사진이 교육을 맡는다. 오전 7시부터는 인성을 주제로 한 원어민 영어수업도 진행된다. 예를 들어 용기(courage)나 자선(charity)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돌아가면서 영어로 발표하는 식이다. 비용은 전액 무료다. 학생들은 하루 2,500원 정도의 점심값만 낸다.

기자가 서울여대를 찾은 지난 3월 28일. 다른 대학이라면 새 학기를 맞아 신입생 환영회와 개강파티로 캠퍼스와 주변 술집이 들쭉날쭉 시간이었지만 서울여대 바름인성교육관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이 건물은 서울여대가 인성교육을 위해 1998년 지은 것이다.

서울여대 관계자는 “오로지 인성교육만을 위해 10층짜리 건물을 짓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은 서울여대 뿐”이라고 말했다. 건물 2층으로 올라가자 8개 강의실에선 예절 수업이 한창이었다.

“여러분, 인사(人事)라는 한자의 뜻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인사는 그저 상대방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고 그것이 몸 밖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거죠.”





전문예절강사의 설명에 따라 학생들은 2시간 동안 악수나 인사 등 기본적인 예절을 직접 실습했다. 수업이 끝난 뒤엔 9시부터 기숙사에 모여 방별로 생활지도교사의 지도로 생활교육이 이어졌다.

이날의 생활교육 프로그램은 ‘빨래통 놀이’였다. 15~16명이 영킨 빨래처럼 옆 사람과 양손을 엇갈리게 맞잡은 뒤 이를 풀어내는 놀이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 엇갈린 양팔을 풀 수 없고 함께 몸을 부대끼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 1961년 개교 때부터 내려온 전통...“너무 내 생각만 하며 살았구나” 깨달아

합숙을 통한 서울여대의 인성교육은 1961년 개교했을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다. 바른 성품을 갖지 않으면 기술과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회를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없다는 취지에 서다. 개교 당시엔 ‘생활교육’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전쟁 직후 한국이 막 성장하던 시절 농촌을 변화시키는 여성지도자를 기르는 게 목표였다고 한다. 그래서 교육과정 중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시간도 있었다. 버스나 교통수단이 없는 농촌지역을 돌아다니기 위해선 자전거가 필수였기 때문이다. 체력단련

을 위해 수영을 가르치던 때도 있었다.

개교 당시엔 4년 내내 합숙생활을 했다. 3년 간 생활관(기숙사) 교육을 마치고 나면 1년 동안은 일반 가정집과 똑같이 생긴 실습주택에서 직접 요리를 하고 청소도 했다. 서울여대 관계자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청소·요리·빨래 등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학생 수가 늘면서 합숙기간이 조금씩 줄었다. 1981년부터는 ‘사회지도자 훈련’으로 과목이름이 바뀌면서 합숙기간도 한 학기가 됐다. 지금처럼 3주간의 합숙교육이 정착된 건 1998년부터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원과 시험 부담에서 갓 해방된 대학생들에게 합숙을 통한 인성교육은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경영학과 1학년 권소망(19)씨는 “솔직히 처음 들어갈 때는 불만도 있었어요. 그런데 3주 동안 지내면서 ‘고등학교 내내 내 공부, 내 성적... 너무 내 생각만 하며 살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라고 말했다. 권씨는 요즘 무슨 일이든 남을 먼저 배려하게 된다고 했다.

외국인 학생이라고 예외는 없다. 중국 출신인 경영학과 1학년 왕샤오핑(27)씨는 “합숙을 하면서 한국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 학교생활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합숙을 들어가고 싶다.”고 웃었다. 실제로 지난해 합숙교육을 받은 신입생 2,000명을 상대로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인간관계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5점 만점에 4.5점 나왔다. ‘친구들과 협력하는 법을 배웠다’(4.3점)는 답도 많았다. 올해 1차로 교육을 받은 52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학생들의 도덕성과 배려심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사회’· ‘세계’를 깨우는 교육

서울여대의 인성교육은 1학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2학년 때는 2주간 합숙을 하며 주로 소통·공감하는 법을 배운다. 3학

년이 되면 합숙은 하지 않지만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인권 문제 등 사회적 이슈를 다룬다. 1~3학년 모두 1학점짜리 필수교양과목이라 이 수업을 듣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다. 1학년 때가 꿈과 인성에 대해 배우는 ‘나를 깨우는 교육’이라면 2학년 때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배우는 ‘사회를 깨우는 교육’, 3학년은 전 세계 이슈를 다루는 ‘세계를 깨우는 교육’이다. 권계화(수학과 교수) 서울여대 바롬인성교육원장은 “핵가족화와 입시 경쟁으로 중·고등학교 때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타인과의 소통능력 등 인성을 길러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인성교육이 취업에도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했다. 중어중문학과 4학년 이지애(22)씨는 “취업한 선배들이 ‘학교 때 배웠던 예절과 인성교육이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때 도움이 된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

서울여대의 인성교육은 다른 대학들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지난해에만 울산대 등 14개 대학이 바롬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전학했다.

## 연세대 ‘레지덴셜 칼리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성균관대 ‘인성 강의’ 등 운영

서울여대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 대학들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추세다. 연세대는 올해부터 전체 신입생이 한 학기 동안 인천 송도의 ‘레지덴셜 칼리지’에서 생활하게 한다. 하루 24시간을 학교 안에서 교수·동료들과 보내며 일상 속에서 전인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다. 정갑영 총장은 지난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지도자가 되기 위한 소양을 익히고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능력을 키우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숙명여대도 유사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영국 옥스퍼드, 미국 예일대 등 외국의 우수

대학들은 수십 년 전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경희대는 교양교육을 위해 ‘후마니타스 칼리지’란 이름의 전담 기관을 2011년 만들었다.

후마니타스는 공동체에 대해 성찰하고 고민을 실천에 옮기는 교양인을 일컫는다. 이 기관에 속한 전담 교수만 100명에 이른다. 학생들은 1학년 한 해 동안 인간의 가치 등을 공부하는 ‘중핵교과’라는 과목을 의무적으로 수강한다.

2학년 1학기에는 ‘시민교과’라는 과목을 들어야 한다. 성균관대도 교양과목 중에서도 인성 관련 과목을 한 강좌 이상 반드시 이수하게 한다. 또 재학 중에 최소 3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게끔 유도한다. 지난해 졸업생은 1인당 71시간을 봉사해 목표치를 배 이상 넘겼다.☺ (사진 출처: 중앙일보 사진부)







### 한국교육개발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 관'에 선정돼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백순근)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 소관 연구기관의 2012년도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경사연의 이번 기관평가는 2012년도 실적을 중심으로, 소속 23개 연구기관 및 2개 부설기관, 1개 대학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평가결과는 연구기관, 연구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각 기관의 필요와 목적에 맞게 활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교육개발원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연속 '경영을 잘한 기관'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와 함께 한국교육개발원의 김창환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장이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I): 교육정의지수 개발 연구'로, 황준성 교육정책연구본부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실장이 '교육지원청의 기능 개편 안정화 방안 연구'로 경사연이 수여하는 '우수 연구자상'을 각각 받았다.





## 한국교육개발원 기관발전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5월 21일(화)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 등 11명을 한국교육개발원(KEDI) 기관발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서울 반포동에 있는 수라온에서 제1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백순근 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박영숙 기획처장의 기관현황 보고가 있었으며, 송광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KEDI 연구·사업의 방향과 기관발전에 대한 조언과 당부가 있었다.

교육계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5월부터 1년간 활동하면서 KEDI의 기관 이전 및 발전을 위한 그랜드 플랜 수립, 성장동력 발굴, 세계수준의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청사진 제시 등에 대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공할 계획이다.



##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 제2차 창조경제 종합토론회서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과 창업지원을 위한 대학혁신방안' 제시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이 지난 5월 15일(수), 16일(목) 이틀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 주최로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2차 창조경제 종합토론회에서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과 창업지원을 위한 대학혁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백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창조경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통한 청년 창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청년들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대학혁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백 원장은 독일(Qualitätspakt Lehre 프로젝트, 베를린공과대학의 Mint 프로그램), 일본(대학발신산업창출거점 프로젝트, 도쿄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부문별 실천전략

:Creative Idea to New Business

2013년 5월 15일(수)~16일(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정책연구 허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책연구 허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정책연구 허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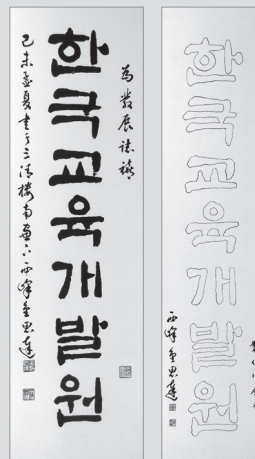




대학의 국제공학교육추진센터), 미국(노스캐롤라이나 주의 Research Triangle Park, MIT의 미디어랩) 등 선진국 사례와 서울대(창의·융합 교육과정 개발), 조선대(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포스텍(미래 IT 융합연구원) 등 국내 사례를 비교·분석해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날 열린 창조경제 토론회에서는 경사연 소속 26개 국책연구기관들이 다 함께 참여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부문별 실천전략'을 심도 있게 모색하였다.

### 한국교육개발원 초기 현판 발굴



필자가 한국교육개발원에 근무하던 1980년대 중반부터 뜻이 맞는 몇 사람(윤양희, 정하원, 김영우, 임선하)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근처의 화랑과 고서점을 다니면서 감식안을 키웠다. 이후 필자는 교육박물관 설립을 꿈꾸면서 교육 관련 자료를 수집해오고 있다.

힘껏 노력한 결과 지금은 3만여 점의 자료를 소장하게 되었고, 조만간 교육박물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이런 인연을 가진 김영우 선생과 나는 둘 다 비록 한국교육개발원을 떠났지만 가끔씩 연락을 주고 받는 관계였다. 평소 건강하던 그였지만 재작년 겨울 급작스럽게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의 손때가 묻은 수집품들은 여기 저기 흩어지게 되었다.

얼마 전 사모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유품을 다 정리하는 줄 알았는데, 집안 어느 반닫이 속에 그림과 글씨가 들어 있더라면서 시간이 나면 들러 감정을 해달라는 부탁이었다. 마침 율곡연수원에서 강의를 있어 멀지 않은 일산의 집에 들렀다. 반닫이를 열고 보니 죽히 100여 점은 넘어 보이는 그림과 글씨가 둘둘 말린 채 쌓여





있었다. 하나 하나 정리하면서 작가의 이름과 시장 가격을 알려드리다 한국교육개발원 초기 현판 글씨를 발견하였다. 한글로 한국교육개발원을 내려서 쓰고, 서봉 김사달 기미하절(西峰 金思達 己未夏節)이라 낙관하였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현판 제작용 원본이라고 써 있었다. 교육자이면서 의사인 서예가 김사달 선생이 1979년 여름에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현판 제작용 원본이라 하면 그것을 현판 제작용 판(주로 나무 재질)에 부착하고, 글씨를 새기는 용도이기 때문에 원본이 남아 있기는 어렵다. 추측컨대 원본을 복사하여 현판 제작에 활용하고, 원본은 남겨두었으리라 짐작된다. 이 때 남겨진 원본이 어떤 경로를 거쳐 김영우 동문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당시의 분위기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이 자료를 그가 입수하여 지금까지 고이 간직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정문에 부착되어 있는 현판과는 다른 글씨체를 가진 김사달 글씨의 현판은 분명히 첫 번째 현판은 아닐 것이다. 1972년 8월에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은 설립 초기부터 그 위상이 매우 높았다. 1978년에 이미 영국 브리태니커사가 선정한 세계 10대 교육연구기관에 들었을 정도였다. 그러니 그 당시의 저명인이 쓴 현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초의 현판이 존재했었는지, 존재했다면 누가 썼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발굴된 현판은 비록 현판 제작용 원본이기는 하지만 한국교육

개발원의 중요한 역사적 자료임에 틀림이 없다. 원본을 이용해 새롭게 현판을 제작하여 보존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 현판 글씨를 쓴 김사달 선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생각을 해본다. 1979년에 최고로 잘 나가던 기관에서 당대의 최고 서예가가 아닌 그에게 현판 글씨를 의뢰한 이유가 궁금해진다. 비록 그는 서예가로 이름을 얻기는 했지만, 그의 스승 손재형, 명필 가문의 김응현, 김충현 형제, 그리고 동문 수학한 서희환과 김기승의 글씨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는 서예가로서보다는 독학으로 의사가 된 사람이나 수필가라는 칭호가 더 어울린 사람이었다. 이런 그의 이력이 가난한 나라의 발전을 위해 교육에 운명을 걸었던, 당시 원장이었던 이영덕 박사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는 이번에 발굴된 현판 외에 그가 쓴 두 점의 작품이 더 있다. 하나는 제1회의실에 있는 쿨원의 시 글씨이며, 다른 하나는 도서실에 있는 국민교육현장 글씨이다.

필자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13년 동안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현재는 현대창의성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면서 교육박물관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2013년 5월 / 임선하 현대창의성연구소 소장 · KEDI 동문)



### 제4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 개최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에서는 국내외 청소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흥미나 관심 주제에 대해 스스로 주도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연구논문 형식으로 발표하는 제4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Youth)를 개최합니다.

관심 주제별 또래 국내외 청소년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ICY는 국제학술대회 경험을 통한 글로벌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청소년 여러분을 창의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3년 8월 1일(목) ~ 8월 2일(금)
- 장소 : 서울대학교 문화관(73동), 멀티미디어 강의동 (83동)
- 주최 : 교육부
- 주관 :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 후원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서울대학교

- The 1st ICY : 9개국 총 105팀 200여명 참여  
- 미국, 싱가포르, 일본, 몽고, 인도,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 The 2nd ICY : 6개국 총 129팀 300여명 참여  
- 미국, 캐나다, 홍콩, 우즈베키스탄, 타이완, 대한민국
- The 3rd ICY : 8개국 총 200팀 1,000여명 참여  
- 미국, 중국, 홍콩, 러시아,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 The 4th ICY : 10개국 총 250팀 1,000여명 참여  
- 중국, 홍콩, 미국, 몽골, 가나, 감비아,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 대한민국



# 한국교육개발원(KEDI) 홈페이지



**KEDI 홈페이지**  
<http://www.kedi.re.kr>



**영문 홈페이지**  
<http://eng.kedi.re.kr>



**전자도서관**  
<http://askkedi.kedi.re.kr>



**학교평가**  
<http://eval.kedi.re.kr>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방송고e스쿨**  
<http://www.cyber.hs.kr>



**영재교육연구센터**  
<http://gifted.kedi.re.kr>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EDUMAC)**  
<http://edumac.kedi.re.kr>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http://eduzone.kedi.re.kr>



**OECD 교육정보센터**  
<http://oecd.kedi.re.kr>



**한국교육종단연구**  
<http://kels.kedi.re.kr>



**교육정책 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edpolicy.kedi.re.kr>



**사교육절감형창의경영학교**  
<http://www.schoolup.go.kr>



**교과교실 지원센터**  
<http://scmc.kedi.re.kr>



**KEDI Idea Bank**  
<http://idea.kedi.re.kr>



**글로벌교육협력연구센터(IEDC)**  
<http://iedc.kedi.re.kr>



**Wee프로젝트 연구특임센터**  
<http://www.wee.or.kr>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http://www.hub4u.or.kr>



**국가평생교육통계**  
<http://lifelong.kedi.re.kr>



**학교선진화지원센터**  
<http://serc.kedi.re.kr>



**사이버교과서박물관**  
<http://www.textlib.net>



**외국인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http://www.isi.go.kr>



**자기주도 학습전형**  
<http://selflas.kedi.re.kr>



**방과후학교 대학생 멘토링**  
<http://mentor.kedi.re.kr/>



# Dream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교육은 희망이고 인재는 미래입니다.

‘희망을 키우고 꿈을 이루는 교육,

미래사회를 여는 역량·지식·인성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한민국 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1972년에 설립되어 지난 41년간  
우리 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온 한국교육개발원.  
이제 ‘한국교육의 싱크탱크’를 넘어  
글로벌 리더십과 창조적 도전정신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할 세계적 연구성과를 창출하며,  
세계 수준의 역량을 확보하여  
‘글로벌 리딩 교육 싱크탱크’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 www.kedi.re.kr

